

The Excavation Report of
Wall site around Ritual house Jangneung Royal Tomb,
Paju

2016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Heritage

제
48
책

파
주
장
릉
재
실
담
장
터
유
적

2
0
1
6

(재)
국
방
文
化
재
研
究
원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



2016

(재)국방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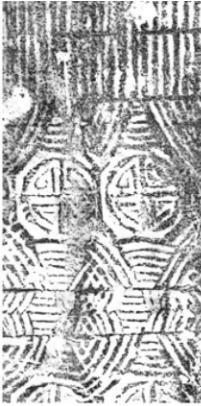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16. 5

(재)국방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 시굴조사”의 최종 결과 보고서이다.
2. 보고서의 유적, 유구 도면에 표시된 방위표시는 磁北을 가리킨다.
3. 유구의 층위도 및 입·단면도에 표기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4. 유구 도면의 축적비 1/40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외의 축적비는 도면 하단에 별도로 명시하였다.
5. 유물 도면의 축적비는 토·도류는 1/2, 기와는 1/4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외의 축적비는 도면 하단에 별도로 명시 하였다.
6. 보고서에 실린 유물은 모두 5점으로 트랜치별로 번호를 붙여 기술하였다.
7. 유구의 층위 색조는 新版標準土色帖 (日本農林水産省監修, 2008)을 따랐다.
8. 기와 문양

호상집선문 1	복합문 1	호상집선문 2	복합문 2
			

* 표지사진 : 파주 장릉 재실 전경

- 목 차 -

I. 머리말	7
II.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	9
1. 자연 · 지리적 환경	9
2. 고고 · 역사적 환경	10
III. 조사의 범위와 방법	26
1. 조사범위	26
2. 조사방법	27
3. 유적의 층위	28
IV. 조사내용	29
1. 1Tr.	30
2. 2Tr.	34
3. 3Tr.	37
4. 4Tr.	38
5. 5Tr.	41
6. 6Tr.	42
7. 7Tr.	43
V. 고찰	46
VI. 맺음말	51
[참고문헌]	52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54
[출토유물 현황]	55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57

지도 차례

【지도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지도(1:25,000)	22
【지도 2】 1919년 지도의 조사지역(S=1:25,000)	23
【지도 3】『장릉도면』, 1935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4

표 차례

【표 1】 장릉의 천릉과정	12
【표 2】 장릉 재실의 규모 변천 과정	12
【표 3】 도면으로 보는 재실의 변천(좌→우)	13
【표 4】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시굴조사 트렌치 제원 및 현황	29
【표 5】 재실 연대추정	47
【표 6】 재실 평면형태 유형 비교	48

도면 차례

【도면 1】 파주 장릉 담장지 시굴조사 현황도(1:400)	25
【도면 2】 조사지역 기준토층도(3Tr. 동벽)	28
【도면 3】 1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31
【도면 4】 1Tr. 수키와(1/4)	32
【도면 5】 1Tr. 도기저부편(1/1)	32
【도면 6】 2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35
【도면 7】 2Tr. 수키와(1/4)	36
【도면 8】 3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38
【도면 9】 4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39
【도면 10】 4Tr. 수키와(1/4)	40
【도면 11】 5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41
【도면 12】 6Tr. 북벽 입면도 및 단면도(1/20)	42
【도면 13】 7Tr. 평면도 및 토층도(1/80)	44
【도면 14】 7Tr. 수키와(1/4)	45
【도면 15】 영릉 재실 정밀실측도면(1/800, 2010년)	49
【도면 16】 장릉 재실 정밀실측도면(1/800, 2014년)	49
【도면 17】 파주 장릉 재실 도면비교	50

사진 차례

【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 구글어스).....	15
【사진 2】 파주 장릉 전경	21
【사진 3】 재실 담장터 조사 전 전경(동→서)	26
【사진 4】 재실 담장터 조사 전 전경(서→동)	26
【사진 5】 재실 동쪽 조사 전 전경(남서→북동)	26
【사진 6】 재실 담장터 조사 전 노출 상태	26
【사진 7】 대전기록원 보관 파주 장릉 재실 배치도.....	28
【사진 8】 현황측량 광경	28
【사진 9】 학술자문회의 광경1	28
【사진 10】 학술자문회의 광경2	28
【사진 11】 조사지역 기준토층(3Tr. 동벽)	28
【사진 12】 조사지역 전경	29
【사진 13】 1Tr. 전경(남서→북동)	30
【사진 14】 1Tr. 담장석렬 노출상태.....	30
【사진 15】 1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30
【사진 16】 1Tr. 담장석렬 축조상태	30
【사진 17】 1Tr. 수키와	33
【사진 18】 1Tr. 도기저부편	33
【사진 19】 2Tr. 전경(남동→북서)	34
【사진 20】 2Tr. 전경2(북동→남서).....	34
【사진 21】 2Tr. 남→북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34
【사진 22】 2Tr. 담장석렬 축조상태	34
【사진 23】 2Tr. 수키와	36
【사진 24】 3Tr. 전경(남→북)	37
【사진 25】 3Tr. 담장석렬 노출상태	37
【사진 26】 3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37
【사진 27】 3Tr. 담장석렬 축조상태	37
【사진 28】 4Tr. 전경(남→북)	39
【사진 29】 4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39
【사진 30】 4Tr. 수키와.....	40
【사진 31】 5Tr. 전경(남→북)	41
【사진 32】 5Tr. 토층전경(서→동).....	41
【사진 33】 6Tr. 전경(남서→북동)	42
【사진 34】 6Tr. 토층전경(북→남)	42
【사진 35】 7Tr. 전경(서→동)	43
【사진 36】 7Tr. 토층전경(동→서).....	43
【사진 37】 7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43
【사진 38】 7Tr. 담장석렬 축조상태	43
【사진 39】 7Tr. 수키와	45

I. 머리말

1. 조사경위와 목적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갈현리 664번지 일원)로 파주 장릉 내에 위치한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파주 장릉의 재실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원형을 규명하고 왕릉의 기본 능제에 맞게 복원하고자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굴조사를 통하여 재실의 대략적인 구조와 형태가 파악되었고, 더불어 재실의 북쪽 구릉에서 담장 일부가 확인되었다.¹⁾ 이러한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에서는 파주 장릉 재실의 담장을 복원하기에 앞서 복원 규모를 확인하고 그 원형을 규명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와 협의 후 문화재청의 허가(제2014-0386호)를 받아 2014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5일간 조사지역(면적 : 2,340m²)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 5월 8일 학술자문회의를 가졌다.

2. 조사단 구성

○ 시굴조사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이재(국방문화재연구원 원장)
- 자문위원 : 이창환(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박기화(한국전통건축연구소 연구실장,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책임조사원 : 장기경(국방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사원 : 문현식(국방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 준조사원 : 안영표(국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조원 : 김태욱(국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시굴조사는 이 재의 책임 하에 장기경, 문현식이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유구의 실측 및 사진 촬영은 안영표, 김태욱이 전담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출토유물세척 및 복원은 문현식, 안영표, 김태욱이 하였다. 유구의 측량은 한빛토목이 전담하였다.

현장조사 후 보고서 발간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은 이 재의 책임 하에 장기경, 문현식이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본문의 I · III · VII장을 문현식, II장을 김태욱이, IV장을 문현식, 최재철이, V장을 문현식 · 김태욱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유물의 정리 · 복원은 안영표, 김태욱이 전담하였다. 이후 도면 제작 및 일러스트레이션작업은 김태욱, 신나라, 민세진, 이한경(국방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팀)이 수고하였다. 유물

1)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장릉 재실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의 사진촬영은 김태욱이 진행하였다. 각각의 원고는 문현식이 취합하여 재편집하였고, 이를 장기경이 수정, 가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재가 교열하였다.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시굴조사를 통해 실제 장릉 재실의 담장석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증 자료와 더불어 그 규모를 확인하여 담장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유구와 유물에 관한 도움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 이창환, 박기화 자문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발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사업자인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와 현대인력관리 여러분에게도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Ⅱ.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남북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휴전선을 포함한 임진강과 사천강을 경계로 북한의 개성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연천군과 양주시, 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남쪽으로는 고양시와 접하고 있다. 북서쪽은 군사분계선에 접하는 서부최전선에 해당된다. 경-위도상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circ} 40'$ ~ $127^{\circ} 02'$, 북위 $37^{\circ} 42'$ ~ $38^{\circ} 02'$ 에 위치하며, 면적은 672.77km^2 이고, 인구는 411,835명이다.

파주시의 지형은 동쪽으로 광주산맥이 북동 –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고, 북쪽으로는 마식령산맥이 동 – 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분지상 지형을 이루고 있다. 경기5악의 하나인 감악산(675m)이 위치하고 있는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광탄면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²⁾

주요 하천으로는 파주 지역의 북서쪽과 서쪽 경계로 흐르는 임진강과 한강이 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한강 하류로 흘러드는 중부지방의 대표적 사행천이다. 파주시 교하면 부근에서 한강과 합쳐지는데, 이 일원에 경기평야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평야들과 함께 밀물 시 퇴적된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은 시생대에 속하나 임진강 안은 신생대에 형성된 현무암 대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현무암 대지는 강이 굽이쳐 흐르는 대안에 주상절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단 70리의 임진강 적벽은 잘 알려진 임진강 주상절리의 대표적 실례이다.

토양은 유적 주위의 하천 퇴적층이나 석회암, 현무암 지역의 저구릉지와 산록, 임진강 주변의 현무암대지에는 배수가 양호한 식질 내지 식양질의 적황색토가 나타나는데 토양색은 약간 분홍빛을 띠고 편마암지역에 비해서 얕다.

파주 지역의 기후는 북부의 대륙성기후와 남부의 난온대성기후의 중간적인 특색을 띤다. 연평균 기온은 11.5°C 로 온화한 편이나 여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8월 평균기온이 25°C 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에는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월 평균 기온이 5°C 까지 내려가 연교차는 약 30°C 로 매우 큰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299\text{mm}$ 내외로 임진강 다우지에 속한다.³⁾

장릉(長陵)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25-1번지에 있다.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동여도(東輿圖)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시된 장릉은 월룡산(月龍山, 229m)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산자락 끝의 오목한 부분에 입지하며, 장릉 남쪽으로는 공릉천(恭陵川)이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을 일컬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뒤의 용절(龍節)⁴⁾이 웅위(雄偉:웅장하고 위엄이 있음.)하고, 뒤의 내맥(來脈: 풍수지리에서 종산에서 내려온 산줄기)이 또 ‘왕(王)’자의 형상이 있습

2) 파주군 · 파주문화원, 1995, 「파주의 역사와 문화」.

3) 파주시, 2009, 「파주시지」1.

4) 마디는 금으로 만들고 용의 모양을 새긴 의장.

니다.”, “또 이기(異氣: 범상치 않은 기운)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왕자(王者)를 장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31년 편찬된 『선원보감(璿源寶鑑)』에는 ‘동쪽에 월룡산을 조산(祖山)으로 하고 북쪽을 주산(主山)으로 하는 자좌오향(子坐午向)의 배치로, 능원의 좌우측에서 흐르는 명당수가 서해로 흐르는 것으로 교하 구치후산(舊治後山)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⁶⁾

1916년에 제작된 대정오년측도(大正五年測圖)에는 ‘장릉’이란 뚜렷한 명칭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장릉’으로 추정되는 곳의 일대가 해발 80m이내의 얕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에 월룡산이 위치하며, 남쪽에 공릉천이 흐르는 등의 큰 맥락이 과거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지형은 구글어스를 통해 본 ‘장릉’의 현재의 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경관림은 낙엽활엽수 대비 소나무의 비율이 25.7%로 낙엽활엽수인 참나무류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부분 식생밀도가 높아 하층식생의 발달이 어려워 간벌(間伐) 등을 통한 역사경관림 복원이 요구된다.⁷⁾

2. 고고 · 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파주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이 인접하고 있고, 이 두 개의 강으로 유입되는 지류가 발달해 있어 일찍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구제발굴조사에 따라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시대에 걸쳐 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특히 임진강을 따라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 보고되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적성면 율포리, 적성면 주월리 · 가월리⁸⁾, 파평면 금파리⁹⁾, 파평면 장파리, 문산읍 장산리¹⁰⁾, 장단면 노상리 · 노하리 유적 등이 있다. 주월리 · 가월리 유적에서는 주먹도끼, 찍개, 긁개, 석핵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이는 전곡리, 원당리 등 임진강 · 한탄강에서 출토된 구석기유물과 성격을 같이 한다. 최근에는 교하읍 와동리와 인접한 고양 덕이동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었고¹¹⁾, 택지개발지구인 운정 1지구¹²⁾와 2지구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파주 적성면 가월리에서도 몸돌, 격지를 포함한 구석기 유물 91점이 출토되었으며, 철기시대 수혈주거지 및 조선시대 토광묘가 확인된 바 있다.

파주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발굴 과정에서 유물이 수습된 월롱면 덕은리, 교하읍 교하리, 적성면 주월리 유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교하읍 다율리 · 교하리, 월롱면 옥석동, 조리면 봉일천리, 문산읍 선유리 · 독서동, 파주읍 백석리 등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었다. 또한 최근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시 · 발굴조사에서 주거지를 비롯한 야외노지가 조사되었다. 고인돌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덕은

5) 『英祖實錄』券二十九, 七年, 五月 庚寅。

‘後龍雄偉 後脈又有王字形矣 (중략) 且異氣如在雲中 至今不爲王者葬 可異也.’

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V)』, 29쪽.

7) 위의 책, 35쪽.

8)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경기도, 1993, 『파주 주월리 · 가월리 구석기유적』.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가월리 유적』.

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금파리 구석기유적』.

10) 서울대박물관, 2004, 『파주 장산리 구석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1)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고양 덕이동 구석기유적 – 파주 교하-덕이동 연결도로 구간 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12)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파주 운정(1)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리 유적은 구릉 상에 위치한 A호 고인돌의 하부에서 발견된 수혈 내부의 적갈색 퇴적토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마제석촉이 출토되었고, 교하리 유적은 라호 고인돌 주위의 장방형 주거지에서 민무늬토기와 함께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밖에 주월리 유적에서는 지표상에서 100여점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고, 연옥제 장신구 3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파주지역에서 조사된 빗살무늬토기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저토기군에 속해 있다.

청동기시대의 파주지역은 문화 중심지의 특성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동북 및 서북지방의 민무늬토기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인 혼합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문화를 한강유역과 남부지방으로 이어주는 중간 매개지역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파주지역에는 많은 청동기시대 유적이 조사·보고되었는데, 대표적인 유적은 교하읍 교하리, 다율리·당하리¹³⁾, 월롱면 옥석동·덕은리, 적성면 식현리, 문산읍 선유리·가찰리·장산리·당동리·운천리 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집터와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유적에서 구멍무늬토기,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가락바퀴, 돌검, 돌도끼, 돌자귀, 숫돌, 돌화살촉, 돌낫, 돌끌, 갈돌, 갈판 등의 청동기 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덕은리 유적에는 20여 기가 넘는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고인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부에서 장방형 집터가 확인되어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하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교하리 유적에서는 고인돌 4기와 움집터 2기가 확인되었고, 돌검, 돌화살촉, 민무늬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율리·당하리 유적에서는 9기의 고인돌과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이곳의 고인돌은 기존에 조사되어진 파주의 다른 지역의 고인돌과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간돌칼, 돌화살촉, 돌끌,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같은 지역에서 조사된 주거지 유적이 있다. 또한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시·발굴조사에서는 모두 5개 지점에서 청동기 시대의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집터가 조사되었다.

초기 철기시대 유적은 적성면 주월리, 문산읍 선유리·독서동·내포리·문산리, 월롱면 영태리, 조리면 뇌조리·조산동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덧띠토기와 쇠뿔형손잡이 단지 등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는 부뚜막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뚜막 시설은 철기문화의 전파와 더불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뚜막은 출입구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데, 강돌과 현무암을 세우고 찰흙을 벌라 벽을 만들고 연도 중앙에 강돌을 일렬로 세워 2등분하였으며, 굴뚝은 움집 벽에 밀착되어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특히 부뚜막 시설을 갖춘 ‘凸’자형의 집터 형태는 중부 지방의 독특한 양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¹⁴⁾. 최근에는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14동과 고상건물지 2동, 구상유구 9기 등이 확인되었고, 이와 함께 통일신라시기의 토기가마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흑탄요, 수혈유구, 회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된 바 있다.¹⁵⁾ 또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횡혈식석실분 10기, 횡구식석실분 3기를 비롯한 고분군이 확인되었으며, 청자화형접시, 청자접시 청자완,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평기와 등이 출토된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함께 가마, 탄재구덩이,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 건물지에서는 명문자기, 소조승려상, 석재보살상, 청동대좌 등이 출토되었다.¹⁶⁾

장릉은 진입공간, 제향·전이공간, 능침공간으로 나뉘는데 재실은 진입공간에 속한다. 재실의 위치는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총 5칸의 건물로 전사청(典祀廳)과 안향청(安香廳)에 서로 맞대어 서측에 있고,

13)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4, 「파주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 및 주거지」.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파주 당하리 유적 – 전원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14) 김규상, 1998, 「파주 주월리 유적 발굴조사」, 『제22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문』, 168쪽.

15)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동패리 유적」.

16)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3, 「파주 덕은리 유적」.

전사청이 홍살문(紅箭門)에서 동쪽으로 240보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지가 재실 서쪽 120보에 있다는 기록도 있으나 현재 재실 서쪽 120보 지점에는 울타리가 쳐져있고, 바깥에는 논이 경작 중에 있어 연지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렵다.¹⁷⁾

재실의 규모는 장릉을 천릉(遷陵)할 당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장릉의 천릉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장릉의 천릉과정

영조7년(1731)	3월 16일	장릉에 대하여 선조(先祖) 때 천봉논의 한 내용과 능침 사이에 뱀이 또아리 틀어 변이 있다고 하여 천장을 논하다.
	5월 28일	영의정 홍치중 등이 교하에 혈을 재고 돌아오다.
	6월 22일	'원경(圓徑)과 석물의 배설(排設)은 영릉(英陵)에 따르고, 방위는 장릉(원래)과 같게 하라.'고 명하다.
	8월 16일	묘시에 장릉의 구(舊)릉을 파다.
	8월 30일	축시에 장릉의 천전(遷奠)을 행하다.

【표 2】 장릉 재실의 규모 변천 과정

문헌기록	간행년도	규모						
		안향청 (安香廳)	진사청 (典祀廳)	재실 (齋室)	집사청 (執事廳) [서행각]	장랑 (長廊) [대문채]	제기고 (祭器庫)	침가 (砧家)
장릉천릉시산릉 도감의궤 ¹⁸⁾ (長陵遷陵時山陵 都監儀軌)	영조7년 (1731)	6칸	8칸	12칸반	6칸	12칸	2칸	2칸
춘관통고 ¹⁹⁾ (春官通考)	정조12년 (1788)	6칸	8칸	5칸	.	.	2칸	.
조선왕조실록	현종4년 (1838)	장릉 재실이 불타다.(長陵齋室火)						
경향신문	1960	창덕궁 내에 큰 불, 6일 새벽 2시에 구황실재산사무국전소(舊皇室財產事務局全燒) 희귀한 재산대장 등 수백점 소실 ²⁰⁾						
파주 장릉 재실(별채) 원형복원 공사 시방서	2013	6칸	.	6칸	7칸	8칸	.	.

17) 典祀廳(八間在紅簡門東三百四十步) 祭器庫(二間在典祀廳傍) 安香廳(六間) 齋室(五間與典祀廳安香廳普接在西邊) 蓮池(在齋室西一百二十步長廣各七十五步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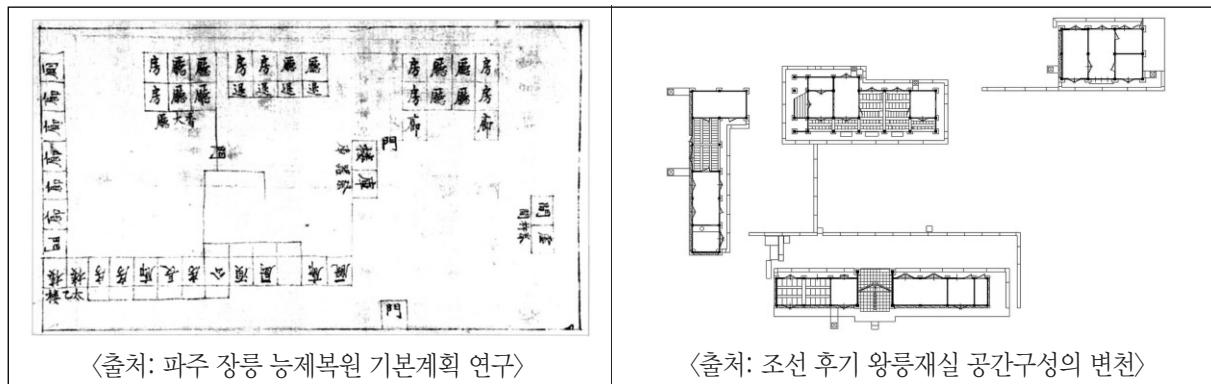
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48쪽.

19) 「춘관통고」가 1788년(정조 12년)에 쓰여진 책임을 감안할 때, 저자인 유의양(柳義養)은 1731년(영조 7년) 장릉이 교하로 옮겨진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20) 〈표 2〉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장릉재실의 변천과정이 모호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960년에 발생한 구황실재산사무국 전소사건이라 추측된다. 해방 이후 궁, 능원 등을 문화재로 연구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서 특별관리하였다. 하지만 사무총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물대장 40권, 왕실재산 대장 및 지적도 등 중요서류 일백여권이 탔다. 아마 장릉에 관한 기록도 이 때 불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조운연, 2009,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쪽〉

【표 3】 도면으로 보는 재실의 변천(좌→우)



1731년의 재실규모가 12칸반인 것은 천릉 당시 가설한 어재실(御齋室, 12칸)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²¹⁾ 침가는 가설된 것을 폐기하였고, 제기고는 화재 이후 복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착수한 조사에서 대문채 주변과 서쪽, 재실 북쪽 약 15m 지점에서 장대석으로 조성된 기단과 방형초석, 폭 57cm 규모의 담장 열과 기타 석렬 등이 확인되어 앞서 언급한 재실의 변천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준다.²²⁾

2) 역사적 환경

삼국시대에 파주지역을 최초로 차지한 것은 백제였다.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던 근초고왕 시기 (346~375년)에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장수왕은 지방행정조직을 중국식 군현제로 편제하여 이 지역에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술이흘현(述爾忽縣), 칠중현(七重縣), 천정구현(泉井口縣), 장천성현(長淺城縣) 등의 5개 현을 설치하였다. 고구려는 나·제·동맹군이 쳐들어오는 551년까지 파주를 통치하였다. 하지만 동맹군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자 파주는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곧 진흥왕에 의해 신라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신문왕 5년(685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9주 5소경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파주는 9주 중에 한산주에 속하게 되었다. 757년(경덕왕 16)에 기존에 사용하였던 주·군현의 명칭을 한자식으로 고쳤다. 파해평사현은 파평현으로, 술이흘현은 봉성현으로, 칠중현은 중성현으로, 천정구현은 교하군으로, 장천성현은 장단현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한산주는 한주로 바뀌었다. 파평현과 중성현은 내소군(來蘇郡)에, 봉성현이 교하군(交河郡)에, 장단현은 우봉군(牛峰郡)에 각각 소속 되었다.

고려는 936년(태조 19)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940년에 주(州)·부(府)·군(郡)을 개편하고 명칭을 고쳤다. 이때 한주는 광주로, 속현인 중성현은 적성현으로 바뀌었다. 995년에는 장단·적성·파평 등이 기현(畿縣)에 속해 개성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파주 지역은 현종 초에는 양광도에 속하였으며, 현종 9년 (1018년)에는 파평현과 적성현은 장단현에, 봉성현과 교하군은 양주에 소속되었다. 또한,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도를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면서 장단·적성·임강·임진·파평현은 좌도에, 양광도

21) 「長陵遷陵時山陵都監儀軌」, 「長陵遷陵都監 殯殿所儀軌」, 粟目秩, 辛亥六月二十七日。
「御齋室四面合十二間所入」

22)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장릉 재실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에 속했던 교하·서원현은 경기도에 이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파주 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다. 1393년(태조 2)에는 서원현이 서원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398년에는 파평현과 서원현을 합하여 원평군을 만들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교하현이 원평군에 소속되었다. 1415년에 원평군이 원평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1418년 교하현이 독립하면서 원평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도호부로 복귀되었다. 파주 관내의 행정구역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파주목·장단도호부·교하군·적성현으로 골격을 잡게 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지방제도의 개편이 뒤따랐다. 1895년(고종 32)에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군으로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현은 군으로 승격되었다.

1912년에 파주 지역은 파주군·교하군·장단군·적성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지만 1914년에 이르러 행정구역을 통·폐합함에 따라 적성군은 연천군에 통합되고, 교하군 전역이 파주군에 폐합되었다. 또한 인근의 양주군·고양군·적성군의 일부가 파주군에 흡수되었다.

1945년에는 연천군의 적성면과 남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장단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듬해인 1973년에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 3월 1일에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승격되고, 금촌읍이 금촌 1동과 2동으로 분동되면서 3읍 11면 2동의 체제를 갖추었다. 2002년 교하면이 교하읍으로, 조리면이 조리읍으로 승격되면서 5읍 9면 2동의 체제를 갖추다 교하지구와 운정지구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현재는 4읍 9면 7동의 체제를 갖추었다.

조사지역인 파주 장릉의 재실은 조선 제 16대 왕 인조(仁祖 1595~1649, 재위 1623~1649)와 원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1594~1635)를 합장한 무덤으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 25-1 일원에 해당한다.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3호로 지정되었다.

인조는 1649년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숨을 거뒀고, 9월 20일 파주 운천리의 인현왕후 능 왼쪽에 예장하였는데 그곳은 인조가 생전에 능지(陵地)로 지목했던 곳이었다.

전통적으로 봉분을 감싸는 12면의 병풍석에는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과 구름 문양을 조각하였지만, 장릉의 병풍석에는 모란문과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봉분 바깥쪽으로 12칸의 난간석을 둘렀으며, 석양(石羊)·석호(石虎) 각 2쌍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봉분 앞에 상석 2좌가 있고, 상석 좌우에 망주석 1쌍이 서 있으며, 봉분 뒤쪽으로는 3면의 곡장(曲牆; 나지막한 담)을 둘렀다.

봉분의 아랫단에는 문인석·석마(石馬) 각 1쌍과 팔각 장명등 1좌가 있는데 장명등에도 모란문과 연화문을 새겼다. 가장 아랫단에는 무인석·석마 각 1쌍을 배치하였다. 능을 옮기기 전 옛 능에 설치되었던 인조 때의 석물과 이장 후 새로 설치한 영조 때의 석물이 혼재된 상태이다. 능원 아래쪽에는 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수복방(守僕房)·홍살문(紅箭門)·재실(齋室)이 있다.

2009년 6월 27일 조선시대 왕릉 40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 구글어스)

3. 조사지역 주변유적

1) 파주 통일동산 조성지역내 문화유적²³⁾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작골 일대에 분포하는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한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본 유적의 조사는 경희대, 고려대, 전북대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경희대에서 담당한 조사구역은 약 30.25~34.50m 내에 분포하며 조사면적은 남북 31m, 동서 21m 내의 조사구역내에 분포하는 무덤은 총 21기로서 호석과 관계있는 수혈식 석곽묘를 제외한 나머지 20묘는 밀집도 및 출토유물 상으로 보아 통일 시기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석실분과 석곽묘는 모두 9기가 조사되었는데, 호석의 유무, 석곽 또는 석실의 길이, 부장유물의 내용에 의하여 세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부류는 직경 600cm내외 호석이 있으며 석곽의 길이가 성인의 신전장이 가능한 200cm이상인 것으로 부장유물에는 장경호가 있거나 많은 잔이 있다. 둘째 부류는 호석이 없으며 길이 200cm미만으로 대체로 150cm내외이며 유물에는 장경호가 없으며 특별히 이에 대치될만한 토기도 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셋째 부류는 B지역에서 조사된 것으로 길이에 비하여 폭이 넓은 편으로 폭 100cm이상이며 부장유물은 없었다. 각 석실분과 석곽묘의 시기는 7세기 전반에서 8세기

23) 황용복 · 신복순 · 김희찬 · 윤세영 · 이홍종 · 윤덕향,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경희대부설 고고 · 미술사연구소.

전반까지 편년할 수 있으며, 각 토광묘들의 편년은 조선 전기에서 중기 사이이다.

2) 이관명 묘역

이관명(1661~1733)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빈(子賓), 호는 병산(屏山), 본관은 전주로, 이조판서를 지낸 민서(敏敍)의 아들이다. 1687년(숙종 13) 사마시에 합격하고 1683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이후에 이조·병조·예조의 참판을 거쳐 1718년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대제학을 역임한 뒤 이조판서에 올랐다. 1725년(영조 1) 우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좌의정에 이르렀다. 1728년 양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1730년 기로소에 들어갔다. 문장에 뛰어나 응제문, 송교문 등을 많이 남겼으며 저서로는 『병산집』 15권 8책이 있다. 나주의 서하사원 흥덕의 동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묘역은 탄현면 법흥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긴 장방형의 돌로 만든 계절에 원형 봉분 1기, 묘비 1, 망주석 2, 상석 1, 향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비는 봉분의 동편에 세워져 있는데 마모가 심한 편이나 비문의 상태는 양호하다.

3) 성동리 고분군²⁴⁾

이 유적은 통일동산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경희대 조사단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통일동산은 약 170만 평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개발하여 통일안보교육장 및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착공에 앞서 문화유적을 조사하게 되었다. 유적의 발굴은 경희대와 전북대, 고려대의 연합발굴단에 의하여 1992년에 완료되었다.

유적은 지표조사 당시 이미 심한 도굴로 인하여 상당히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 석실·석곽의 경우에는 묘실에 사용되었던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그 주위에도 많은 도굴구덩이들이 파여져 있었다. 발굴은 유적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아랫부분은 전북대, 가운데는 고려대, 윗부분은 경희대에서 담당하였다. 당초 이 유적은 백제유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했으나 이 지역이 삼국의 각축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기의 고분만이 출토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성동리 고분군이 있던 자리는 통일동산이 조성되었으며, 역사교육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헤이리 예술마을 동쪽인 성동리 산 63번지로 이전 복원하였다.

4) 형제봉 봉수

봉화대가 있는 곳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통일동산 경계지점에 걸쳐 있는 형제봉에 있다. 이 산은 봉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록상에는 형제봉이라 남아 있지만 봉화대는 현재 봉화산이라 불리는 해발 124m의 산 정상에서 발견된다.

형제봉 봉수의 설치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輿地圖書』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在郡西十五里 兄弟峰 西應豐德地德積山烽 南應高陽地高峰烽 舊 在黔丹山 遷陵後移設于茲’²⁵⁾라 하여 “군의

24) 앞의 책.

25) 『輿地圖書』, 「京畿道」, 交河, 烽燧.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 兄弟峰봉수는 西쪽으로 豊德의 德積山烽에 응하고 南쪽으로는 高陽의 高峰烽에 응한다. 전에는 黵丹山에 있었으나 長陵이 옮겨짐에 따라 이곳에 설치하였다.”하여 이 봉수가 장릉의 이전에 따라 종래의 겸단산봉수를 대신하여 설치되었으며, 봉수노선에 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 산 정상부에는 군부대의 진지공사로 인하여 완전히 훼손된 상태이며, 가운데 부분이 깊이 2m 정도로 우뚝하게 파여 있다. 현재 삭토된 정상부의 전체둘레는 61m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남북 14.5m, 동서 25m로 동-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정상부나 주변에서 토기편이나 자기편 등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진지공사에 사용된 할석들은 보이지만 봉화대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정상부가 평坦하게 삭토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이곳은 겸단산 봉수와 입지여건이 비슷하여 북쪽으로 임진강 건너편 덕적산 일대와, 남쪽으로 고봉산 일대가 잘 조망되며, 동쪽으로는 직선거리 8km 지점에 있는 월룡산이 가깝게 보인다.

5) 법흥리 느티나무

보호수는 광산 김씨 조상이 약 450년 전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할 당시 후손들이 느티나무처럼 넓게 퍼지라는 번성의 의미로 식재한 것이라 전해진다.

석재를 이용하여 2단으로 둥그렇게 단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 주간은 둘레가 4.6m에 이르는데 원래 이곳에서 뻗어 올랐던 가지들은 고사하여 동공이 형성되어 있고 표피에는 돌기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일부는 박리되어 노거수 특유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괴상으로 뻗어 올라간 근원부에서 4m 정도부터 양 옆으로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 있으며,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개의 받침목이 설치되어 있다. 매우 발달한 주간과 넓게 발달한 수관으로 인해 특이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령은 450년, 높이는 12m이다.

6) 이천 묘역²⁶⁾

이천(1274~1349)은 고려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군실(君實), 호는 국당공(菊堂公), 본관은 경주(慶州), 문희공(文僖公) 세기(世基)의 아들이다. 1299년(충렬왕 25) 국자감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344년(충혜왕 복위 5)에는 진사시를 총괄하여 하을지(河乙池) 등 33인에게 급제를 주었다. 같은 해 2월 충목왕이 즉위한 이후에 첨의평리상의로서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왕이 서연(書筵)을 설치하자 판밀직사사로 시독(侍讀)하였고, 정당문학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월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묘역은 정남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역 전체가 모두 개축되었다. 묘역 내에는 봉분 1, 묘비 1, 상석 1, 문인석 2, 망주석 2, 석등 1, 향로석1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천 묘역 주변으로 경주이씨 국당공파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주이씨 국당문효공파 대종회가 위치해 있다.

26)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7) 장사길 묘역²⁷⁾

장사길(1319~1418)은 고려 말~조선 초의 무신으로 자는 장만(昌萬), 호는 복제(復齊), 본관은 안동(安東), 의주목사를 지낸 려(儻)의 아들이다. 1351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군기를 관장하는 밀직사사를 역임하였다. 아버지가 의주목사로 좌천되어 북방으로 이주할 때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나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이후 그곳에서 주위사람들과 반정을 계획하여 군사 5,000명을 양성하였다.

그러던 중 이성계를 만나 위화도에서 함께 회군한 뒤 죄영을 역습하고 우왕을 폐위하여 공양왕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1398년 왕자의 난 때 방원을 도와 정사공신 2등이 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사정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였다는 사현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겨우 화를 면하였다. 의주토호의 반란을 진압하고 압록강 연안 1,000리를 조선영토로 편입하여 수령을 두고 읍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시호는 희양(僖襄)이다.

사면에 호석을 두른 봉분은 평면 직사각형으로 190×575×380cm의 규모이다. 문인석 2기는 풍화작용에 의해 안면부가 크게 손상되어 원형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묘역 우측으로는 장양공 장철(張哲) 망배단(望拜壇)이 있으며, 묘역입구에는 상곡재사(上谷齋舍)와 안동 장씨 종가(宗家)가 있다.

8) 이건명 묘역

이건명(1663~1722)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노론의 4대신 중의 한사람으로 자는 중강(仲剛), 호는 한포제(寒圃齋), 본관은 전주이다.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쳐 1704년 이조판서에 오르고 형조, 호조, 예조의 판서를 차례로 지냈다. 1717년에는 우의정에 올랐다. 숙종이 승하하자 총호사로서 장례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재상으로 있을 때 훗날 영조의 균역법 제정에 바탕이 되는 결역전용책(結役轉用策)을 제시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송설체에 뛰어났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신원되어 과천의 사충서원, 나주의 서하사우등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묘역은 남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고 봉분 1, 묘비 1, 망주석 2, 상석 1, 향로석 1이 배치되어 있다. 장대석은 상석과 나란히 1열이 있다.

9) 탄현면 성동리 고분군

성동검문소에서 좌회전하여 오두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 왼쪽으로 내 건너에 154m의 야산이 보이는데, 현재는 통일동산이 조성되어 있다. 이 산의 북서쪽 두 능선에 고분군이 있는데 이미 발굴조사되었다. 이곳에 있는 묘지는 원형 호석이 있는 대형 횡구식 석곽묘, 소형 석곽묘, 토광묘, 조선시대 민묘, 터널형 석곽묘 등이다. 북쪽 구릉 최말단에 위치한 대형 횡구식 석곽묘를 살펴보면, 안으로 기울여 쌓은 장방형의 석곽을 11m 직경의 원형 호석이 두르고 있다. 호석은 판석을 3~4단 쌓았는데 높이는 35cm이다. 석곽은 길이 300m, 높이 120cm(판석10단), 상부 너비 100cm, 하부 너비 150cm이다. 남쪽에 4단 정도의 턱이 쳤으며 시신을 안치한 후, 대형 판석을 이용해 이곳을 막았다. 바닥에는 30~40cm 크기의 판석을

27)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깔았다. 출토유물로는 분청자기접시편, 회색경질토기 뚜껑편, 청자대접편, 대부완편, 백자접시편, 이형석기 등이 수습되었다.

10) 검단산 봉수

검단산 봉수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해발 150m인 검단산 정상에 있다. 이 봉수는 조선 초기의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제외하고 조선 중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부터는 조선후기의 각종 읍지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 봉수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黔丹山烽燧 西應豐德郡德積山 南應高陽郡高峯城山’이라 하여 서쪽으로 풍덕군 덕적산, 남쪽으로 고양군 고봉성산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이 작성된 조선초기에는 행정구역상으로 교하현에 속하였으며, 조선중기인 16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설치되어 이후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운영되었던 봉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산천 조에서는 봉수가 위치하는 검단산에 대하여 현에서 서쪽으로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후 발간된 『東國輿地志』(1656)에서는 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으며, 산천 조에서 ‘儉丹山 在縣西五里 百濟僧儉丹所居故名’이라 하여 봉수가 위치하는 검단산이 현의 서쪽 5리에 있는데 백제의 승려 검단이 여기에 머무른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輿地圖書』의 산천조에서는 ‘黔丹山 在郡西十五里 山 自月籠山來 古有異僧 賞於此山之中 石崖之下 結菴而居 自號黔丹山 之得名以此’라 하여, ‘검단산은 군의 서쪽 15리에 있으며 산은 월룡산에서 온다. 옛날에 이승이 있어 일찍이 이 산 중의 절벽에 암자를 엮어 거처하면서 스스로 검단산이라 부른데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돌무더기의 형태를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검단산 봉수는 국경지대의 봉수와는 달리 내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대를 쌓지 않고 아궁이인 연조만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 연조는 가장 대표적인 두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하나는 원형이며 다른 하나는 사각형이다. 현재 남아 있는 동측의 연조는 원형으로 지름이 290~330cm이며, 높이가 170cm 정도이다. 서측의 연조는 사각형으로 170×200cm이며, 높이가 90cm 정도이다. 두 연조의 사이거리는 대략 1m 정도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군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연조 둘레에 담을 쌓았던 흔적도 발견된다. 이 담의 무너진 흔적을 통해서 그 지름이 약 14m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검단산 봉수는 장릉의 이장으로 인하여 1842년에 폐기된 봉수이며, 내륙 봉수라고 하더라도 고양의 독산봉수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고, 봉수 내부에 구축된 구덩이가 봉수가 올려지던 당시의 유구라고 하는데에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다시 말해 이곳이 검단산 봉수터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유구는 당시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전쟁 당시나 그 이후의 군사시설 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11) 정연 묘역

정연(1389~1444)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심(仲深), 호는 송곡(松谷),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안평대군의 장인이다. 17세 되던 1405년(태종 5)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424년 형조 병조참판을 지냈다.

1430년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인순부윤, 병조판서를 지냈다. 1442년 사은사 겸 주문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사후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봉분이 4각의 호석으로 돌려진 점, 묘비의 개석 모습, 문인상의 풍만함 등으로 보아 이 묘역은 고려시대 무덤의 양식을 이은 것으로 보여진다.

묘역은 크게 2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인과 합장인 봉분을 중심으로 묘비상의 석물 4기가 있다. 봉분은 4면에 가로 4매, 세로 4매의 길쭉한 화강암을 호석으로 돌려 만들었는데 뒤편은 앞쪽에 비하여 길이가 점차 줄어드는 형상을 하고 있다. 봉분의 바로 앞에 묘비가 2기 있다. 앞에서 보면 왼쪽이 정연의 것이고, 오른쪽은 그의 부인 것이다. ‘正統九年甲子十一月七日立’ 이란 연기로 보아 1444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문인상은 전체적으로 몸체의 볼륨이 풍부하여 우람한 모습이며, 아래쪽에는 신발을 신은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12)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번지 시그네틱스 증축공사부지내 유적²⁸⁾

조사지역은 1996년 준공된 시그네틱스 주식회사의 파주공장(전체부지 62,094m²)내 남측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조사 면적은 33,102m²이다. 조사지역 일원은 해발고도 80m 내외에 잔구성 구릉지에 해당되며, 부지 북측, 현재 본관이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시그네틱스(주) 파주공장부지는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영화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서측에 법흥로가 지나가고 있고, 남측은 사적 제203호로 지정되어 있는 ‘파주 장릉’의 문화재보호구역과 접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별도의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그러나 ‘파주 장릉’과 접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 현재까지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3) 파주 장릉

조선조 16대 인조와 그 비 인렬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의 능이다. 금촌읍에서 310번 국도를 타고 탄현방면으로 가다가 갈현 3리 표지석이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소로를 따라 1km 정도 직진하면 나타난다. 인조는 선조의 제5남 定遠君(元宗, 추존)의 맏아들인 綾陽君으로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재위 중 李适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고 昭顯·鳳林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치욕을 당하였다. 한편 이 시기부터 붕당간의 알력이 격화되어 정치적으로 혼란이 거듭됨에 따라 인조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1649년(인조 27)에 승하하였다. 애초에는 능지가 파주 운천리(현 문산읍)에 있었으나, 1731년(영조 7) 많은 뱀이 석물 틈에 집을 짓고 극성을 부려 지금의 위치로 옮겨 합장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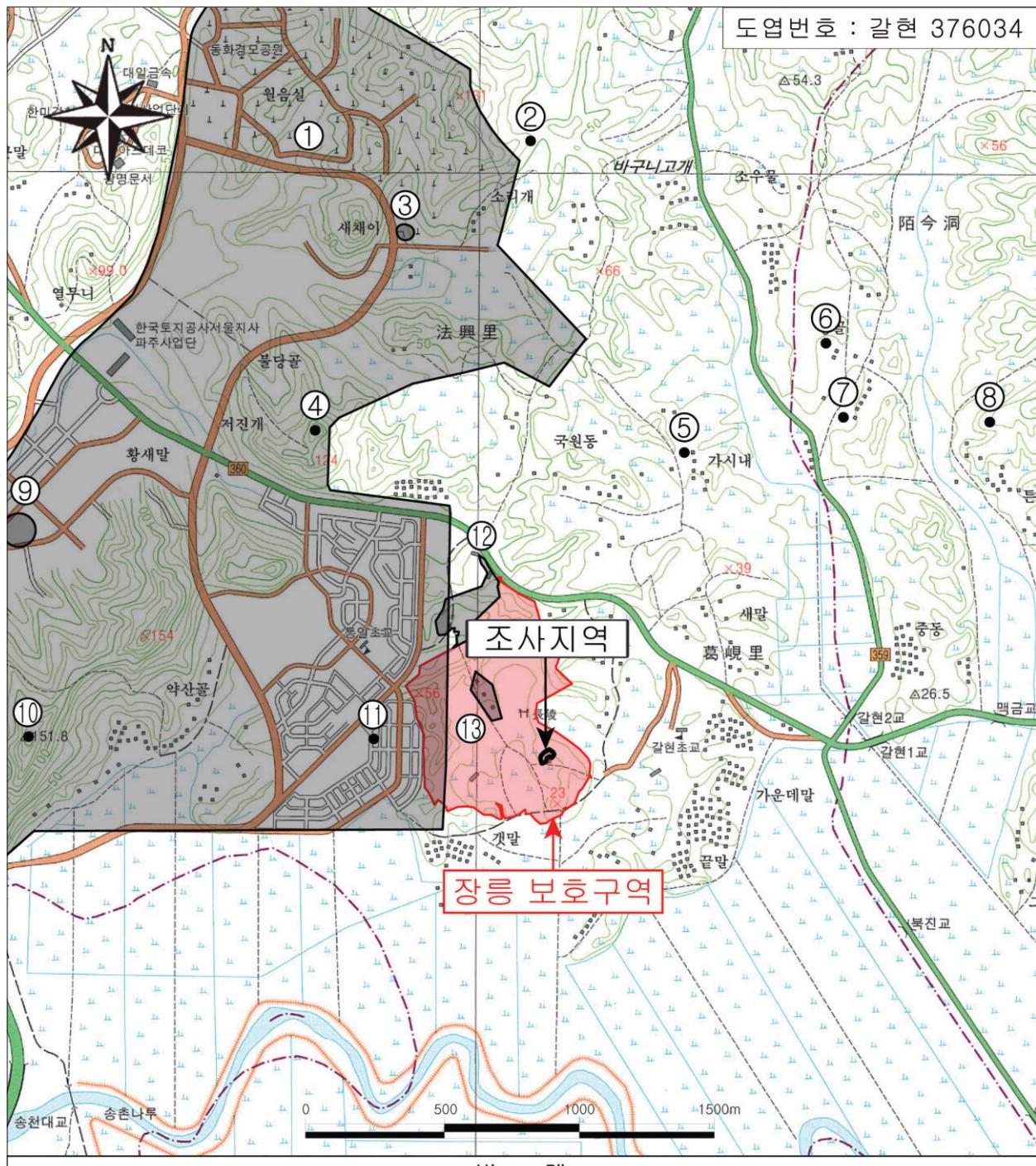
장릉의 석물제도는 봉분 아래로 병풍석을 세우고 그 바깥으로 돌난간을 둘렀으며, 능 앞에 상석 2좌를 배치하여 2위임을 나타냈다. 합장관계로 척수가 맞지 않게 된 병풍석과 상석, 난간석을 제외하고는 구 장릉의 석물을 그대로 신 장릉에 옮겨왔다. 구 장릉에서 옮겨온 장명등이나 병풍석 및 앞뒤 다리 사이를 투조한 석수 양식 등은 태조의 건원릉 석물양식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 장릉에서는 병풍석의 문양을 종래

28)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탄현면 시그네틱스 증축공사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통적인 운문과 십이지신상이 아닌 화문(목단문과 연화문)으로 바꾸고 8각형의 장명등에도 목련과 연화문을 조각해 넣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능석물 문양이 갖는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릉의 병풍석 문양은 장조의 융릉 병풍석의 전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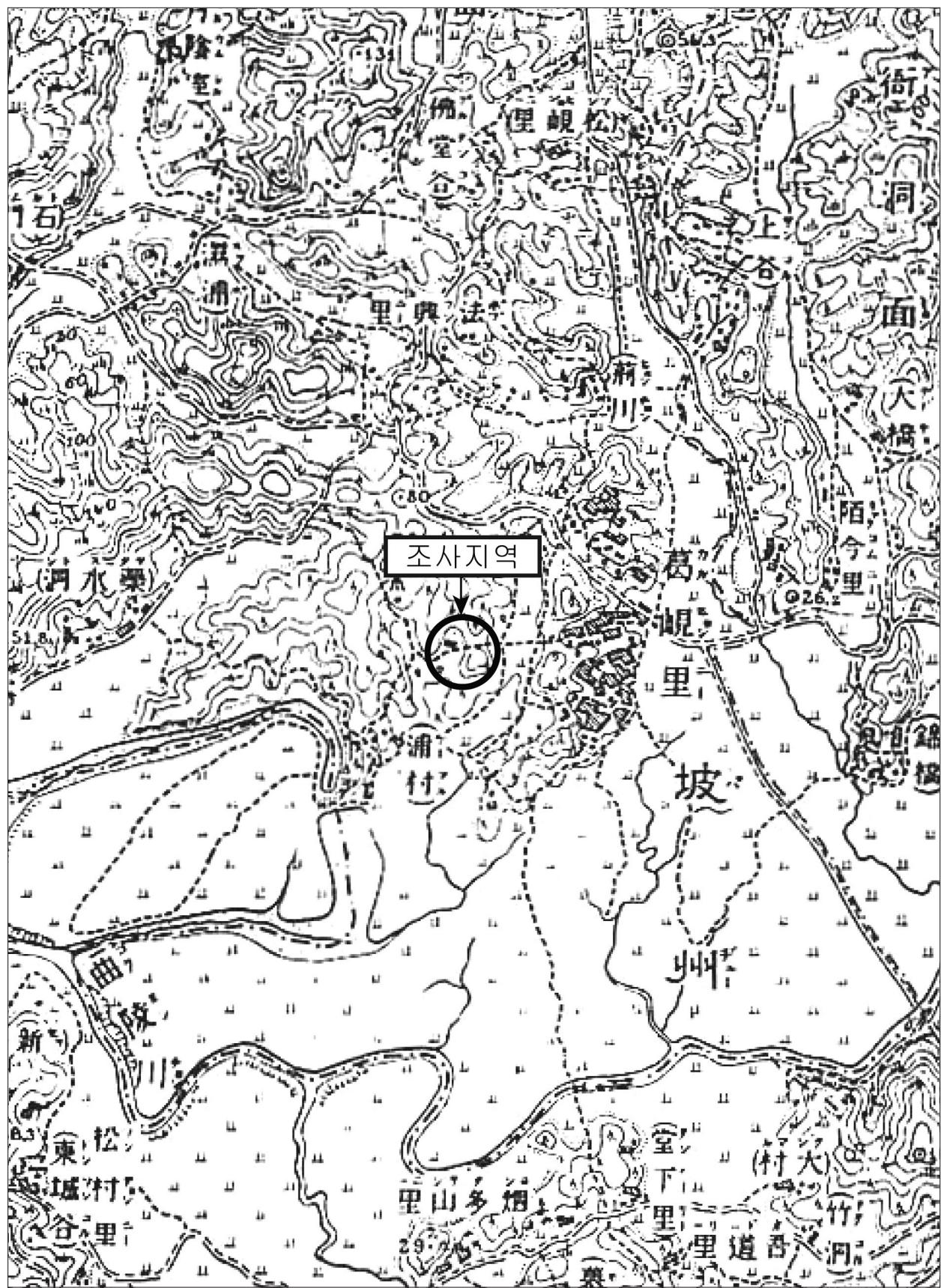
【사진 2】파주 장릉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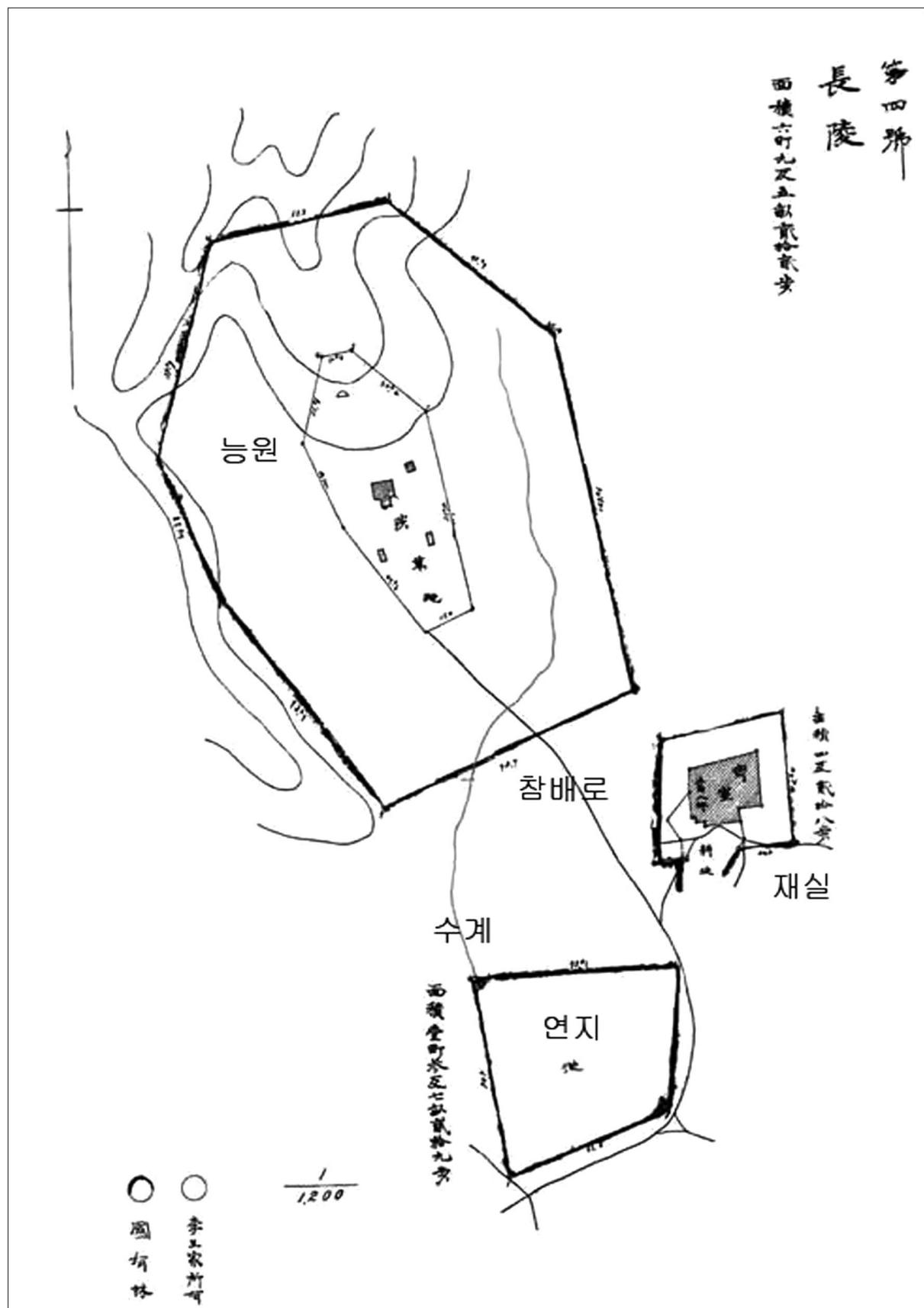
범례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①	파주 통일동산 조성지역내 문화유적	⑥	이천 묘역	⑪	정연 묘역
②	이관명 묘역	⑦	장사길 묘역	⑫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번지 시그네틱스 증축공사부지 내 유적
③	성동리 고분군	⑧	이건명 묘역	⑬	파주 장릉 능원
④	형제봉 봉수	⑨	탄현면 성동리 고분군		
⑤	법흥리 느티나무	⑩	검단사 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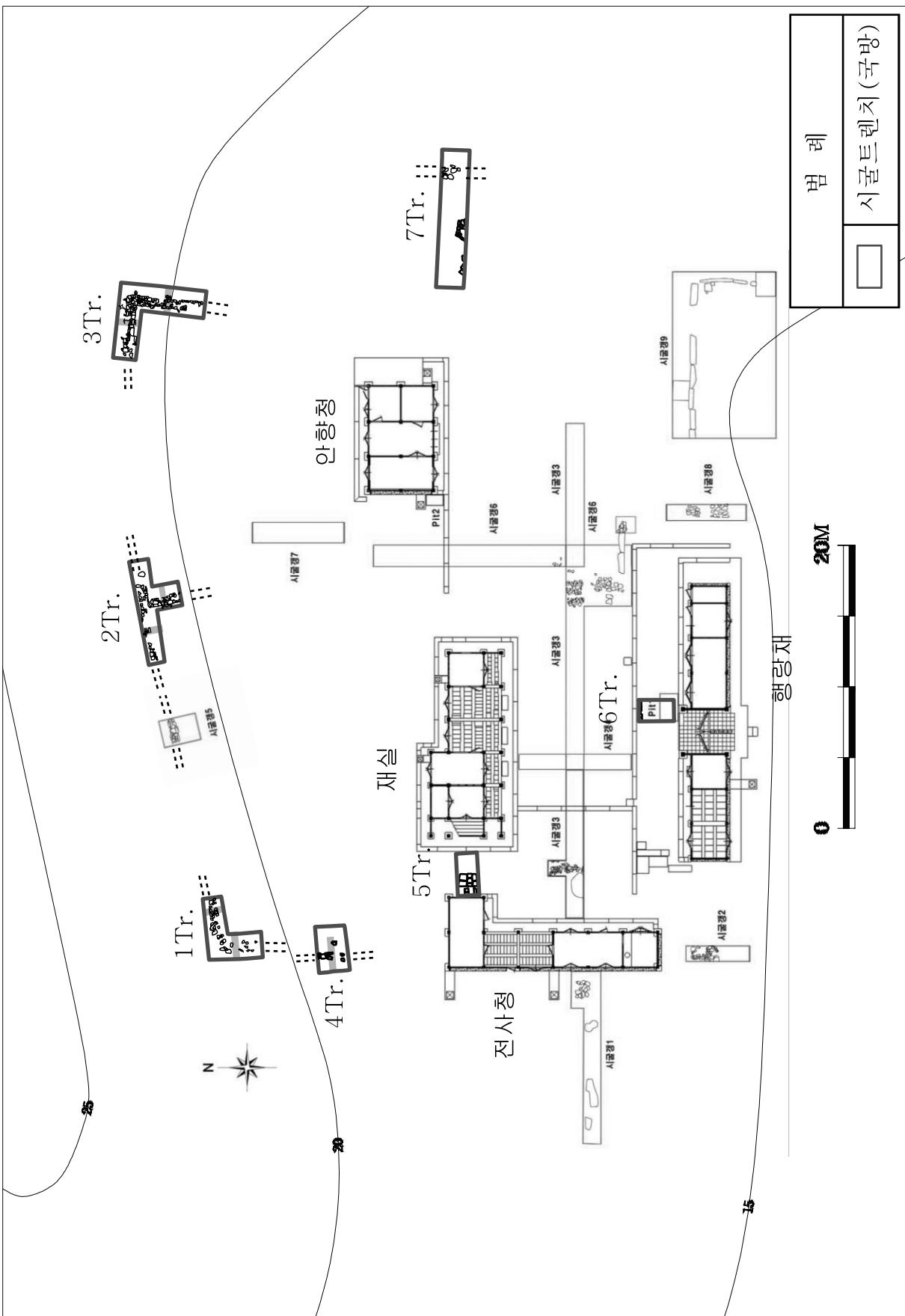
【지도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지도(1:25,000)



【지도 2】 1919년 지도의 조사지역(S=1:25,000)



【지도 3】『장릉도면』, 1935년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도면 1】 피주 장릉 담장지 시굴조사 현황도(1:400)

III. 조사의 범위와 방법

금번 조사는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의 위치 및 범위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담장터를 찾기 위한 5개의 트렌치(1~4Tr., 7Tr.)와 재실 내에 2개의 트렌치(5~6Tr.)를 구획한 후, 총 7개 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 3】재실 담장터 조사 전 전경(동→서)



【사진 4】재실 담장터 조사 전 전경(서→동)



【사진 5】재실 동쪽 조사 전 전경(남서→북동)



【사진 6】재실 담장터 조사 전 노출 상태

1. 조사 범위

장릉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갈현리 664번지 일원)(사적 제203호)에 있으며, 위도 $37^{\circ} 46' 24''$, 경도 $126^{\circ} 42' 29''$, 해발고도 23m에 위치해 있다. 장릉은 당시 도성인 창덕궁으로부터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31.9km에 입지하며, 북쪽으로는 법흥리와 접하며 남쪽 1.5km 지점에 공릉천이, 서쪽 3km 지점에 임진강이 흐른다. 파주 장릉은 산릉도인『선원보감』에 교하 구치후산 아래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동측에 월룡산(해발 229m)을 조산(祖山)으로 하고 북측을 주산으로 하는 자좌오향의 배치인 것으로 되어 있

다. 능원의 좌우측에서 흐르는 명당수가 서해로 흐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장릉은 능원의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북고남저형 지형으로 진입로부터 능침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장릉은 주산과 좌청룡, 우백호 산세에 의해 위요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재실은 능 제사의 전반적인 준비를 담당하는 곳으로 장릉의 재실은 『춘관통고』와 『선원보감』 등의 기록을 통해 좌청룡 밖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춘관통고』에 전사청은 8칸으로 홍살문에서 동쪽으로 240보(약 283m)에 있으며 제기고는 2칸으로 전사청 옆에 있다. 안향청은 6칸, 재실은 5칸으로 전사청과 안향청에 서로 맞대어 서측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천릉 당시의 기록인 『장릉천릉시산릉도감의궤』의 기록과 『춘관통고』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다. 안향청 6칸과 전사청 8칸은 같은 규모지만 재실은 천릉 당시 12칸 반이었다가 『춘관통고』에는 5칸으로 줄여 기록되었으며, 집사청 및 그 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조사지역인 현재 장릉 재실 영역은 중앙 재실과 그 동쪽에 안향청, 서쪽에 전사청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대문이 시설되어 있는 행랑이 가로 놓여 있다. 재실은 정면 5칸에 전퇴가 있는 건물에 좌측과 후면에 퇴를 낸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가구는 1고주 5량이고 팔작지붕이다.²⁹⁾

2. 조사방법

시굴조사의 진행은 조사지역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층위양상 파악과 재실 담장터의 위치 및 범위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지역 내 지형과 재실의 건물구조를 염두에 두고 지표상에 노출된 석렬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에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설치한 시굴갱을 피하여 구획한 후 ‘ㄱ’, ‘ㄴ’, ‘ㄹ’, ‘ㅁ’ 자 형태의 트렌치를 통해 담장터 위치 및 구조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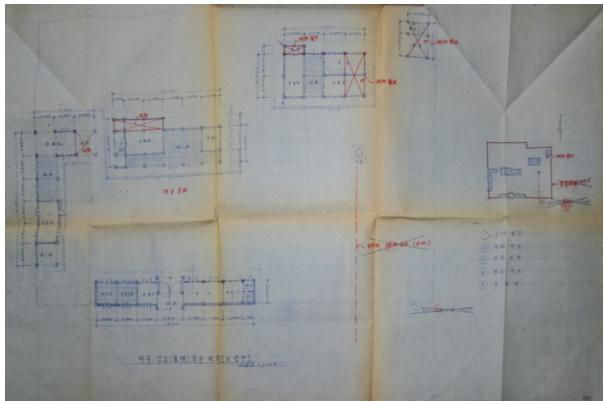
조사는 담장터를 찾는 것에 주력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4Tr.는 지표상 확인된 담장석렬을 찾아 노출하였으며, 5~6Tr.는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의 보완조사의 일환으로, 7Tr.는 서쪽 담장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⁰⁾

1~4Tr.에서 확인된 담장석렬은 지표상에서 석렬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담장의 축조기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규모는 상황에 맞게 설정하였는데, 1~3Tr.는 노출된 상태를 추정하여 담장석렬이 꺾여서 돌아가는 부분을 중점으로 3.5~7.5m 규모로 담장에 맞추어 설치하였다. 4Tr.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담장석렬을 중심으로 2~3m 규모로 트렌치를 설치하였고, 그 후 담장석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5~6Tr.는 조사목적에 맞게 1.5~3.1m 규모로 설치하였고, 7Tr.는 담장석렬을 찾기 위해 담장석렬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규모 10m의 Tr.를 지형 여건에 맞게 설치하였다.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는 측량과 사진촬영 및 실측을 통해 기록하였다. 트렌치의 제토방식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층위 단위로 제토해 나갔으며,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이 확인될 경우 수작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트렌치와 일부 확장을 통해 유구의 부존유무와 토층을 확인하였다.

29) 문화재청,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V)』, 2013, 49쪽.

30) 3Tr.와 7Tr. 사이에는 느티나무 고목이 있고, 7Tr.의 남동쪽에는 관리사무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7Tr.에서 확인된 담장의 범위를 더 조사하고 싶었으나, 지장물로 인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사진 7】 대전기록원 보관 파주 장릉 재실 배지도



【사진 8】 현황측량 광경



【사진 9】 학술자문회의 광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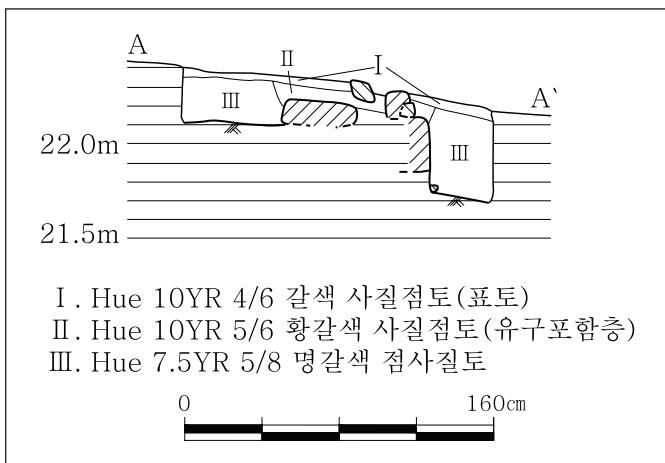


【사진 10】 학술자문회의 광경2

3. 유적의 층위

담장터의 층위는 3Tr.와 동일하게 표토 아래 유구가 드러나는 양상이다. 담장은 구지표인 Ⅲ층을 굴착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I : 갈색 사질점토(표토층)
- II : 황갈색 사질점토(유구포함층)
- III : 명갈색 점사질토(구지표층)



【도면 2】 조사지역 기준토층도(3Tr. 동벽)



【사진 11】 조사지역 기준토층(3Tr. 동벽)

IV. 조사내용

조사지역인 파주 장릉 재실은 북고남저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는 곳이다. 이곳은 대문간을 기준으로 정면에는 ‘_’ 자형 재실이 위치하며, 서쪽에는 ‘ㄱ’ 자형 부속채가, 북동쪽에는 ‘_’ 자형 부속채(안향청 추정)가 있다. 조사 당시 재실의 주변에는 담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 조사는 재실의 담장터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이에 담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지표조사한 결과,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북쪽, 동쪽, 서쪽의 일부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에 재실의 담장터를 찾기 위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 3, 4, 7Tr.에서 재실의 담장석렬이 확인되었다. 5Tr.에서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석렬 및 ‘ㄱ’ 자형 부속채의 아궁이터가, 6Tr.에서는 장대석의 기초시설이 노출되었다.

담장석렬은 대부분 20~4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현재는 1~2단 정도 잔존하는데, 일부에서 생활석재(맷돌)를 재사용한 흔적도 확인된다. 지금은 주변 식목의 생장 등으로 인해 원형의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사진 12】조사지역 전경

【표 4】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시굴조사 트렌치 제원 및 현황

트렌치 번호	트렌치 제원(m) [남북×동서×깊이]	확인된 석렬 제원 [남북×동서×최대폭]	기타
1Tr.	4.0×4.5×0.2	3.2×3.8×0.9	‘ㄱ’ 담장석렬(북서쪽)
2Tr.	3.5×7.5×0.2	3.2×5.8×0.5	‘ㄱ’ 담장석렬(북쪽)
3Tr.	6.0×5.5×0.2	5.4×4.5×0.8	‘ㄱ’ 담장석렬(북동쪽)
4Tr.	2.0×3.0×0.6	1.5×0×0.3	‘_ ’ 담장석렬(서쪽)
5Tr.	1.5×3.1×0.3	아궁이 [길이×폭×깊이] 0.5×0.7×0.2	서행각 아궁이
		석렬 [남북×최대폭] 1.5×0.6	
		1.5×0.6	남북 석렬
		깊이 : 0.4	장대석 잣돌바닥채움
7Tr.	2.0×9.8×0.4	석렬 [남북×최대폭] 1.4×0.3	'_ ' 담장석렬(동쪽)
		성격미상 [동서×최대폭] 1.3×0.2	
			성격미상유구

1. 1Tr.

1Tr.는 ‘ㄱ’자 부속채의 북쪽에 위치한 구릉의 평탄지에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쪽으로는 자연 배수로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지표상에 담장석렬로 추정되는 석렬이 일부 노출된 상태였다. 석렬이 노출된 상태에 맞추어 $4.0 \times 4.5m$ 크기의 ‘ㄱ’자 형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에서는 북서쪽 모서리부분의 담장석렬이 확인되었다. 북쪽 담장 석렬의 경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었으나, 구릉의 경사면과 직교하게 조성된 서쪽 담장석렬은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담장 석렬에 사용된 석재는 20~40cm 정도의 할석을 사용하였고, 담장 석렬의 폭은 60cm 정도이며, 부분적으로 2단정도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1Tr.를 통해 담장 석렬의 서쪽 부분이 남-북, 동-서로 향하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남-북 담장석렬은 ‘ㄱ’자 부속채를 향해 조성되어 있다.



【사진 13】 1Tr. 전경(남서→북동)



【사진 14】 1Tr. 담장석렬 노출상태



【사진 15】 1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사진 16】 1Tr. 담장석렬 축조상태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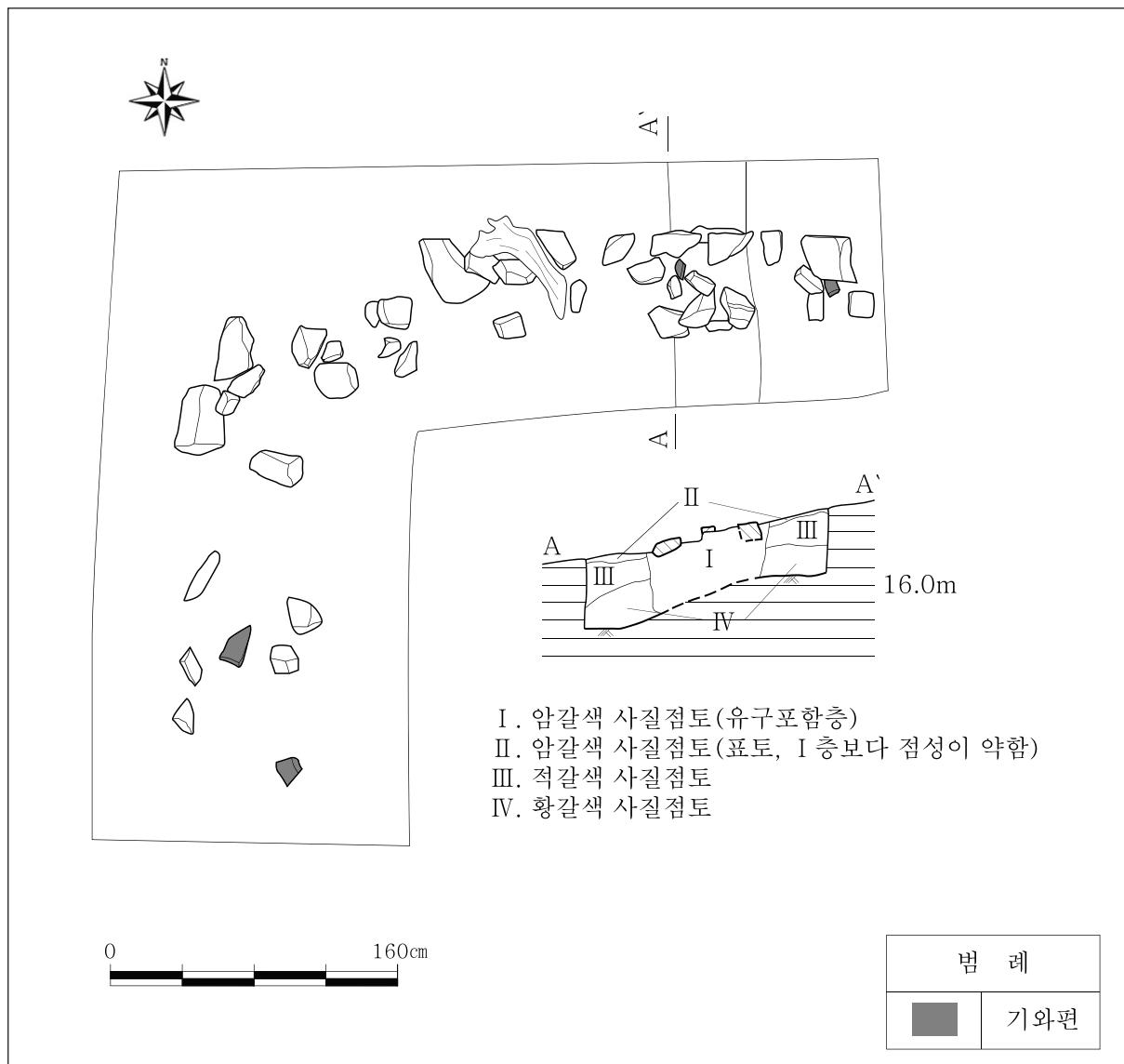
1) 수키와

수키와로 완형에 가까우나, 상·하단의 일부분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미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도는 경질이다. 미구의 길이는 0.9cm, 언강 높이는 1.1cm이다. 외면은 복합문으로 상

단에는 호상집선문을 타날한 후 상부 약 1.9cm정도 물손질하였으며, 하단은 횡선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관찰된다. 와도흔은 내측와도로 0.3~0.5cm 정도이다. 색조는 외면 회색(Hue 7.5Y 5/)이고 내면과 속심은 동일한 화올리브색(Hue 5Y 5/2)이다. 길이 30.0cm, 너비 14.7cm, 두께 2.6cm

2) 도기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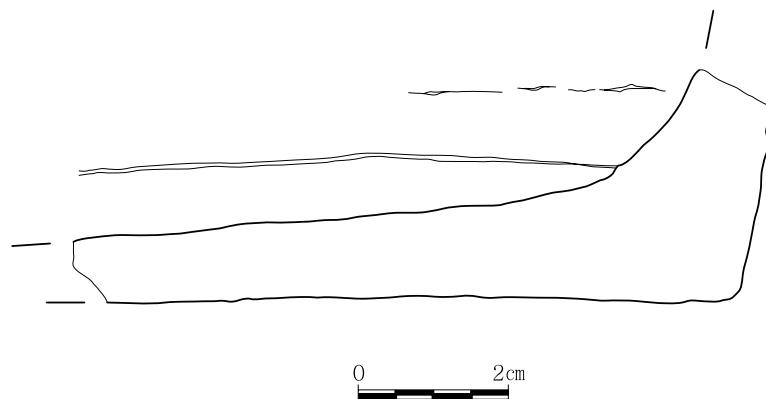
도기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태토는 미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도는 경질이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저면의 전면에서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내면에서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이 동일한 회색(Hue 7.5Y 5/1)이고, 속심은 천황색(Hue 2.5Y 7/3)이다. 높이 3.1cm, 두께 1.1~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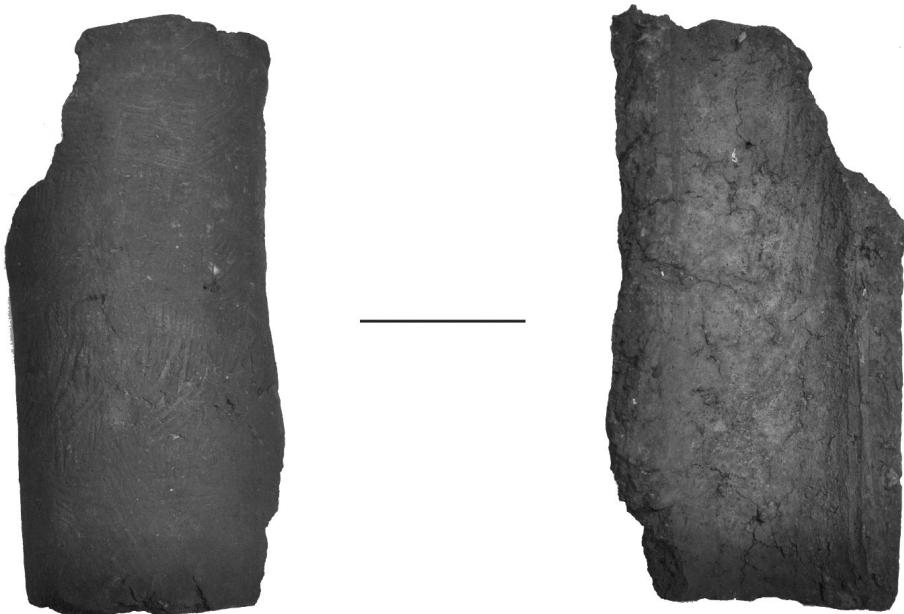
【도면 3】 1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도면 4】 1Tr. 수키와(1/4)



【도면 5】 1Tr. 도기저부편(1/1)



【사진 17】 1Tr. 수키와



【사진 18】 1Tr. 도기저부편

2. 2Tr.

2Tr.는 재실과 북동쪽에 위치한 ‘_’자 부속채 사이의 북쪽 구릉 평탄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상에 담장석렬로 추정되는 석렬의 노출된 상태에 맞추어 3.5×7.5 m 크기의 ‘_’자 형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에서는 북쪽열과 함께 북동쪽에 위치한 ‘_’자형 부속채를 구분하는 ‘_’자형 담장석렬이 확인되었다. 2Tr.에서 확인된 담장석렬은 북쪽 담장이 식물의 생장 등으로 인해 훼손이 많이 되어 부분적으로만 잔존해 있었으며, 남쪽으로 연결되는 석렬의 경우 북쪽 석렬보다는 상태가 양호하다. 담장석렬의 석재는 20~5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주변의 생활석재(맷돌)를 재사용한 예도 확인된다. 동–서 방향으로 조성된 북쪽 담장 석렬의 경우 폭 60cm 정도이며, 부분적으로 1~2단이 잔존하고 있다. 남–북 방향으로 조성된 담장석렬의 경우 북쪽 담장석렬에 직각으로 맞대어 조성되어 있고, 북쪽 담장석렬을 조성한 이후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4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폭 50cm 정도의 담장 석렬을 조성하였고, 현재 1~2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 남–북으로 조성된 담장석렬은 재실과 부속채 사이를 향하여 진행하는데, 이는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로 추정된다.



【사진 19】 2Tr. 전경(남동→북서)



【사진 20】 2Tr. 전경2(북동→남서)



【사진 21】 2Tr. 남–북 탐색 트렌치 토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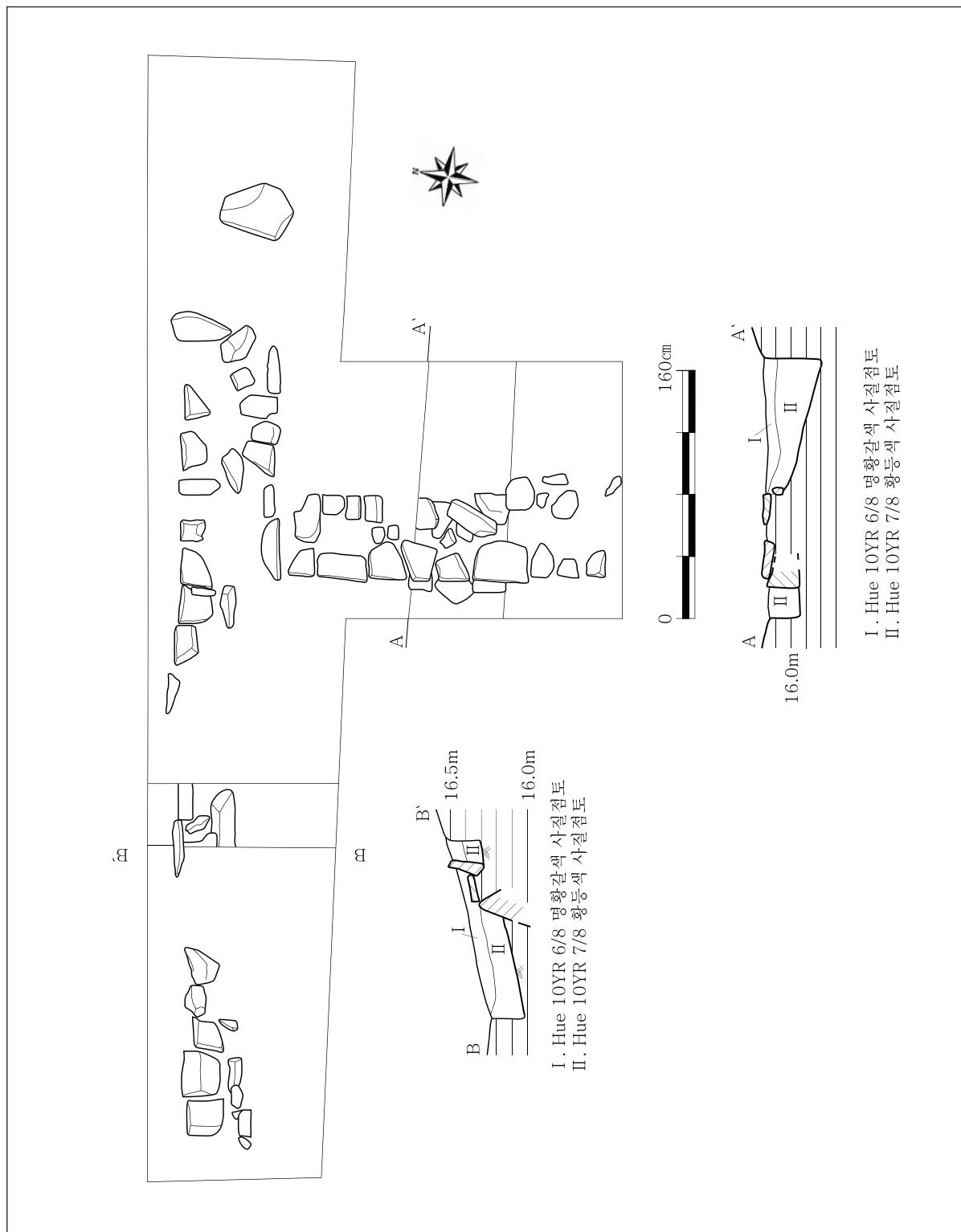
【사진 22】 2Tr. 담장석렬 축조상태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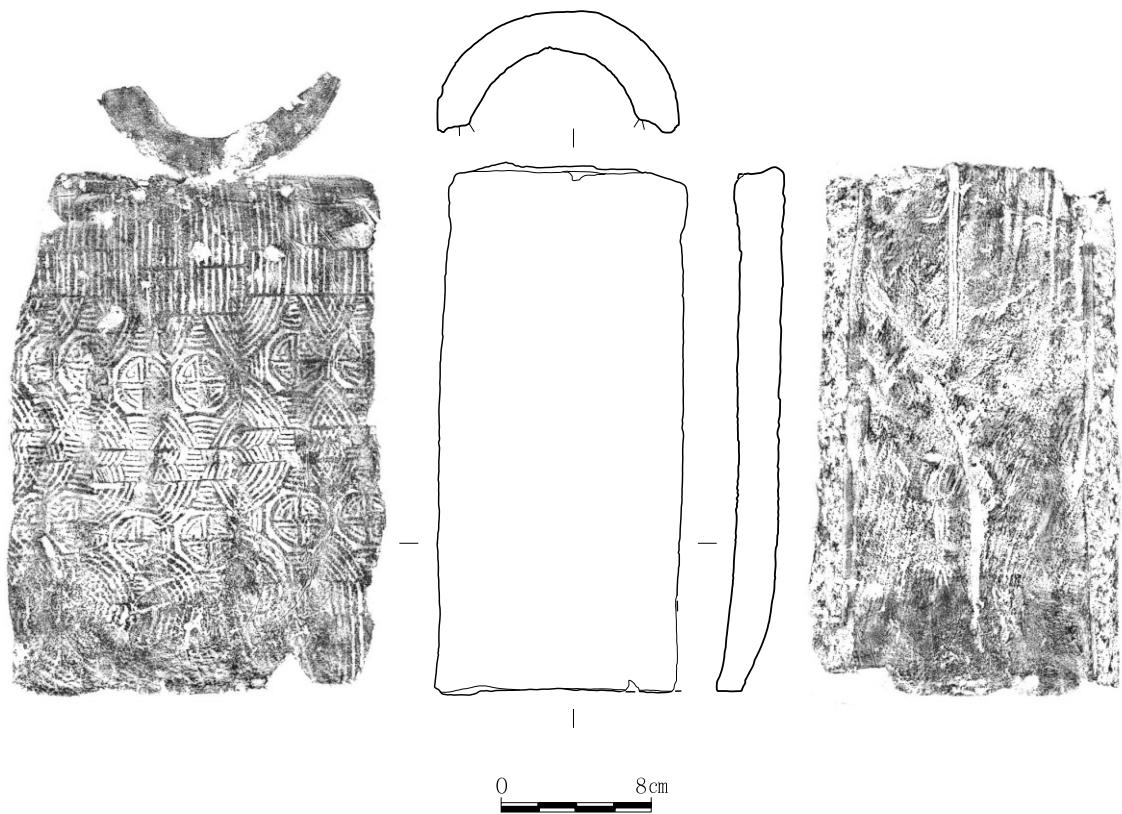
1) 수키와

수키와로 완형이다. 태토는 사립이 미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도는 경질이다. 언강 높이는

1.9cm이다. 외면은 복합문으로 상단은 종선문을 짧게 타날한 후 상부 약 1.3cm정도 물손질하였다. 중단과 하단부는 원문과 어골문 등 복합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관찰된다. 와도흔은 내측와도로 0.2~0.6cm정도이다. 색조는 내외면이 동일한 황회색(Hue 2.5Y 6/1)이고 속심은 회색(Hue 5Y 4/1)이다. 길이 28.15cm, 너비 13.4cm, 두께 2.2cm



[도면 6] 2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도면 7】 2Tr. 수키와(1/4)



【사진 23】 2Tr. 수키와

3. 3Tr.

3Tr.는 ‘—’자 부속채의 북동쪽 구릉 평탄지와 그 구릉 경사면의 지표상에 노출된 석렬에 맞추어 설치하였으며, 크기는 6.0×5.5 m로 ‘ㄱ’자 형태이다. 트렌치 내에서는 북동쪽 모서리부분의 담장석렬이 확인되었다. 담장에 사용된 석재는 20~4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폭 60cm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1~2단 정도만 잔존한다. 트렌치의 하단부에 동쪽 담장석렬 일부의 잔존상태가 불량한 것은 구릉의 단차가 생기고, 기존 화장실로 사용된 단독건물 등의 해체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4】 3Tr. 전경(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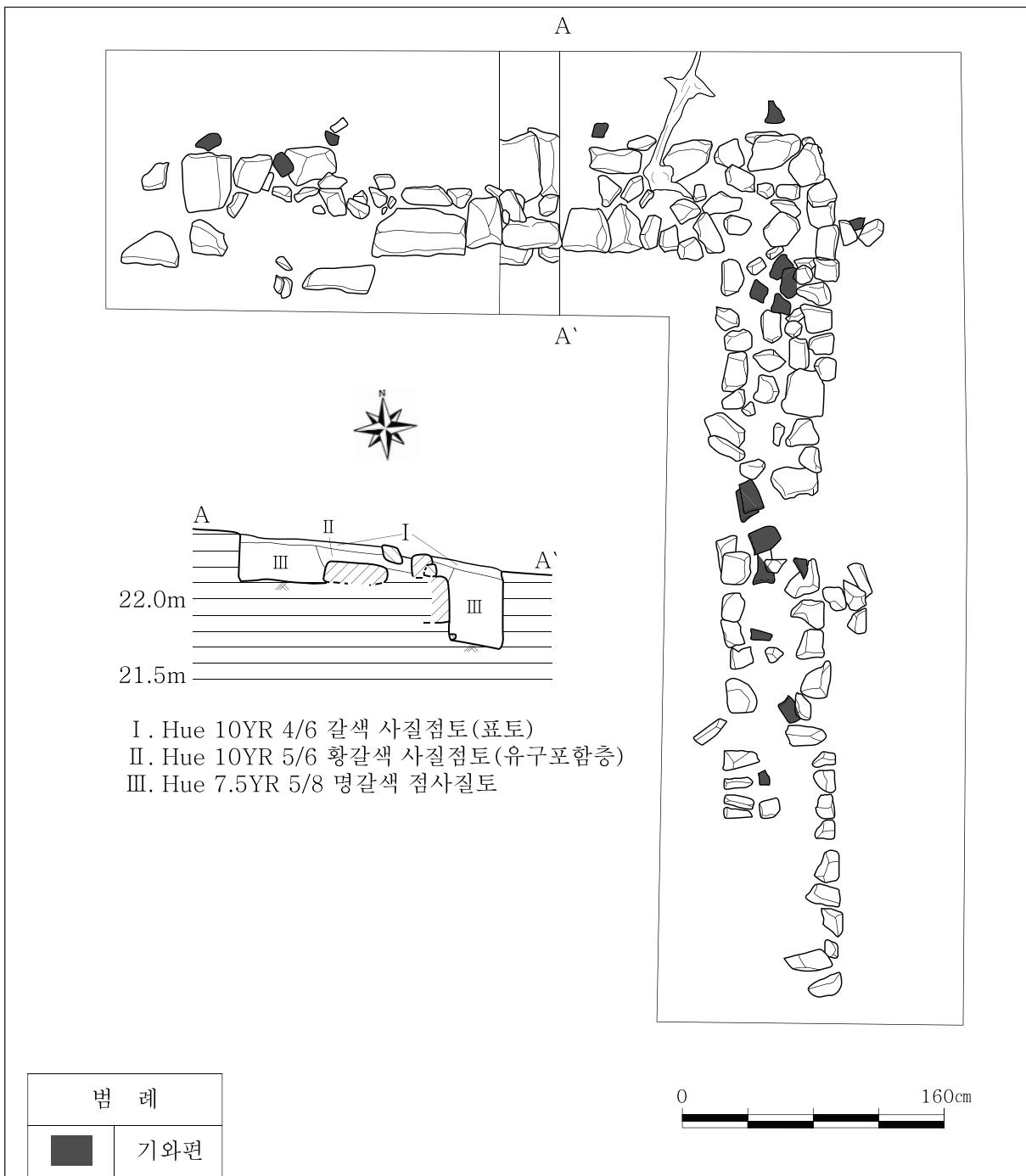
【사진 25】 3Tr. 담장석렬 노출상태



【사진 26】 3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사진 27】 3Tr. 담장석렬 축조상태



【도면 8】 3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4. 4Tr.

4Tr.는 1Tr.의 구릉 하단부 경사면에 위치한다. 서쪽 담장석렬을 확인하기 위해, $2.0 \times 3.0\text{m}$ 크기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에서는 잔존 상태가 불량하지만 서쪽 담장석렬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릉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으면서 주변 자연 배수로 등으로 인해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담장석렬의 폭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4Tr.의 남쪽 부분에는 ‘ㄱ’ 자 부속채가 있으며, 부속채와 구릉의 사이면에

담장석렬로 추정되는 석재가 지표상에서 확인된다.



【사진 28】 4Tr. 전경(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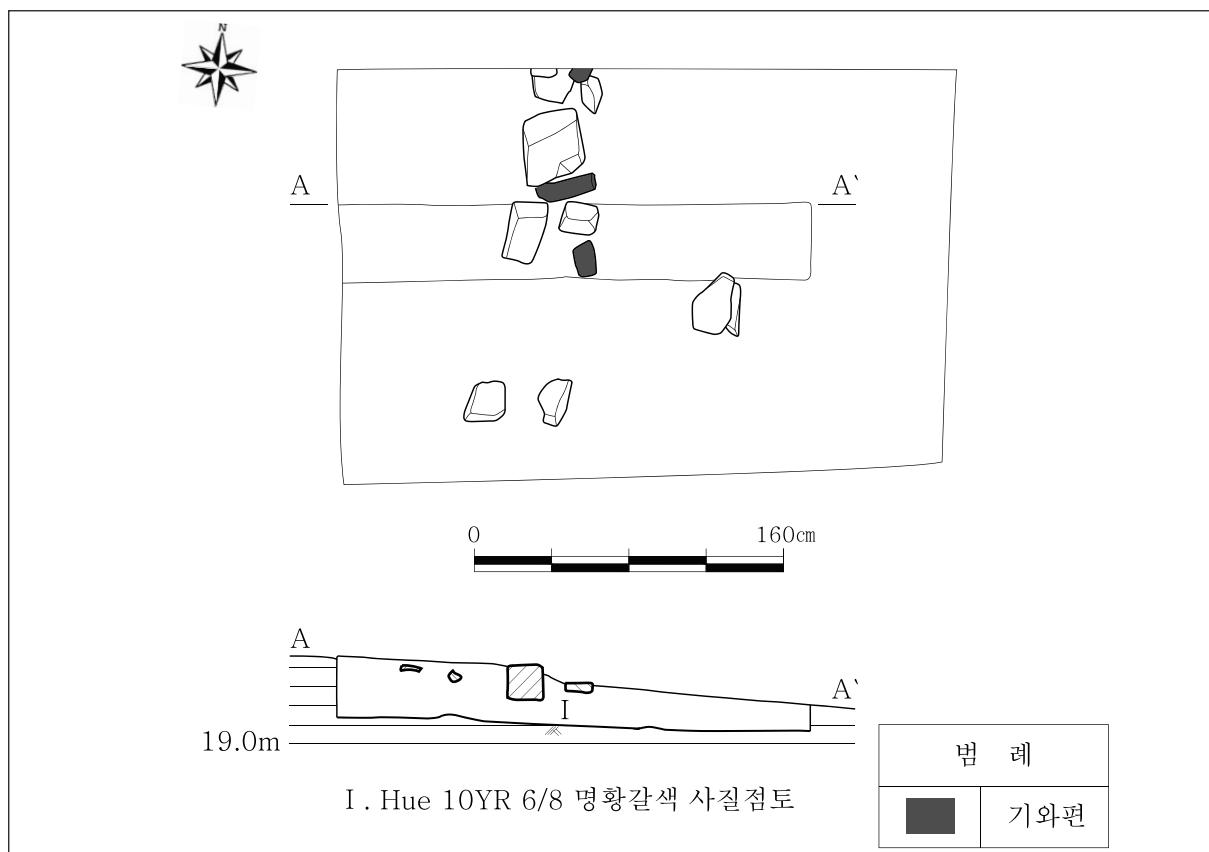


【사진 29】 4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출토 유물〉

1)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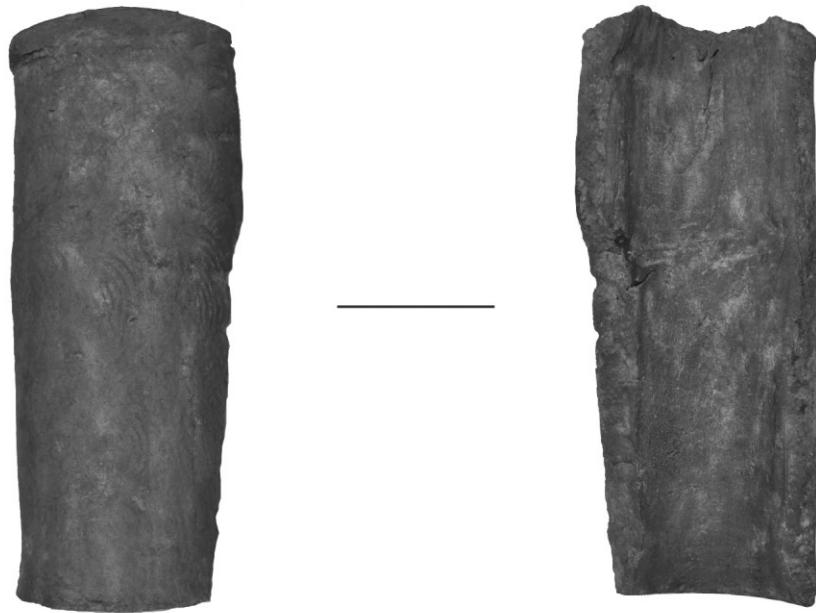
수키와로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미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도는 경질이다. 미구의 길이는 0.7cm이고, 언강 높이는 1.3cm이다. 외면은 호상집선문을 타날한 후 상부 약 2.2cm정도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흔이 관찰된다. 와도흔은 내측와도로 0.4~0.8cm정도이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동일한 회색(Hue 7.5Y 5/)이다. 길이 31.7cm, 너비 13.1cm, 두께 2.1cm



【도면 9】 4Tr. 평면도 및 토층도(1/40)



【도면 10】 4Tr. 수키와(1/4)



【사진 30】 4Tr. 수키와

5. 5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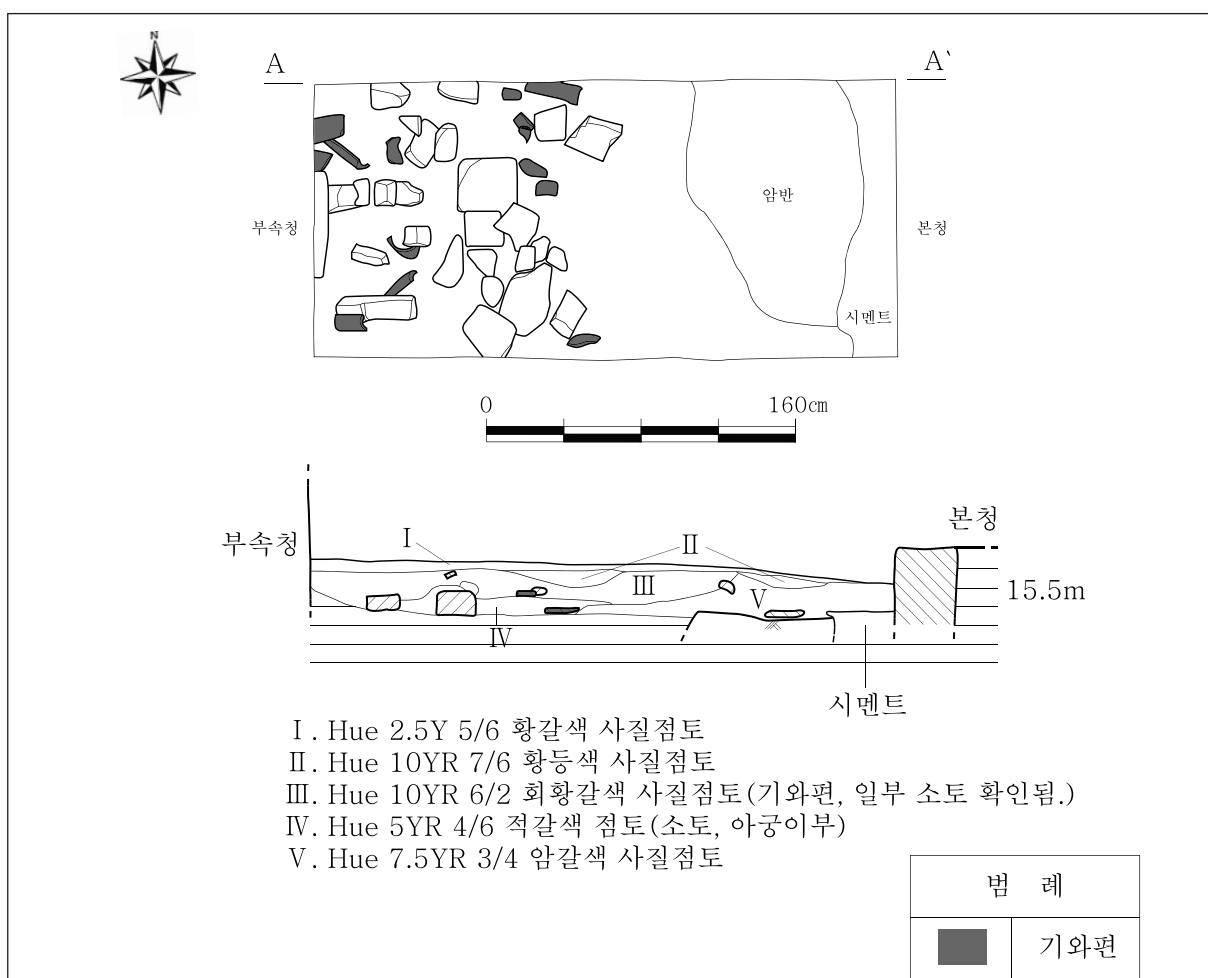
5Tr.는 재실과 ‘ㄱ’자 부속채 사이에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규모는 $1.5 \times 3.1\text{m}$ 이며, 시굴강3(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확인된 석렬이 계속해서 연장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Tr. 내부에서는 남–북방향의 추정석렬이 확인되었다. 또한 Tr.에서는 ‘ㄱ’자 부속채의 아궁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재 복원된 아궁이의 위치보다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31】 5Tr. 전경(남→북)



【사진 32】 5Tr. 토층전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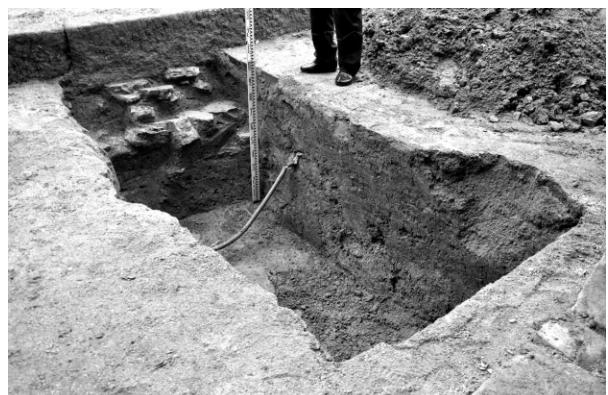


6. 6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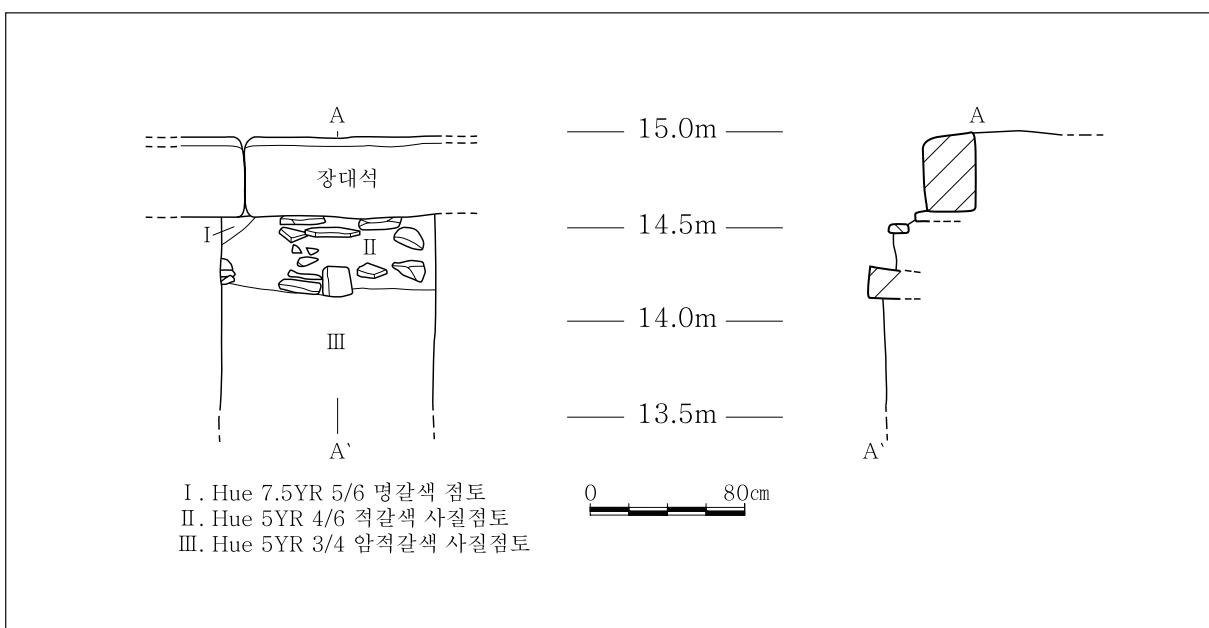
6Tr.는 대문채와 마당에 조성된 장대석 사이에 $2.5 \times 1.5\text{m}$ 크기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마당에 조성된 장대석 하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Pit.1을 확장하였다. 조사 결과, 장대석 하부에는 바닥을 정지한 후 잔돌(10~20cm 정도의 할석) 받침으로 하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33】 6Tr. 전경(남서→북동)



【사진 34】 6Tr. 토층전경(북→남)



【도면 12】 6Tr. 북벽 입면도 및 단면도(1/20)

7. 7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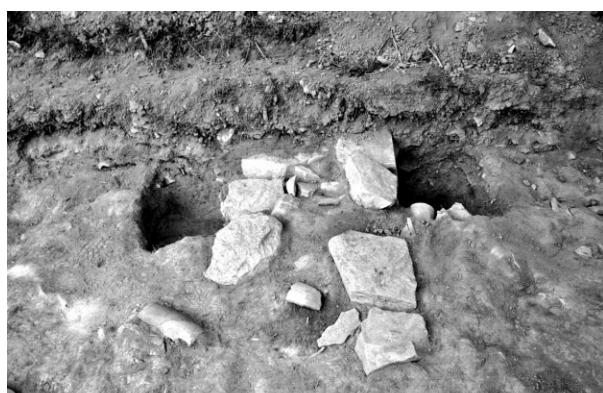
7Tr.는 ‘—’자 부속채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 담장석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크기는 $2.0 \times 9.8m$ 로 구릉의 경사면에 맞춰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에서는 재실 동쪽 담장석렬로 추정되는 석렬과, 성격을 알 수 없는 석렬이 서쪽에서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장릉 재실 배치 수치지도를 참고 해 볼 때, 3Tr.에서 확인된 담장 석렬이 한번 꺾여서 7Tr. 서쪽 석렬과 만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35】 7Tr. 전경(서→동)



【사진 36】 7Tr. 토층전경(동→서)



【사진 37】 7Tr. 탐색트렌치 토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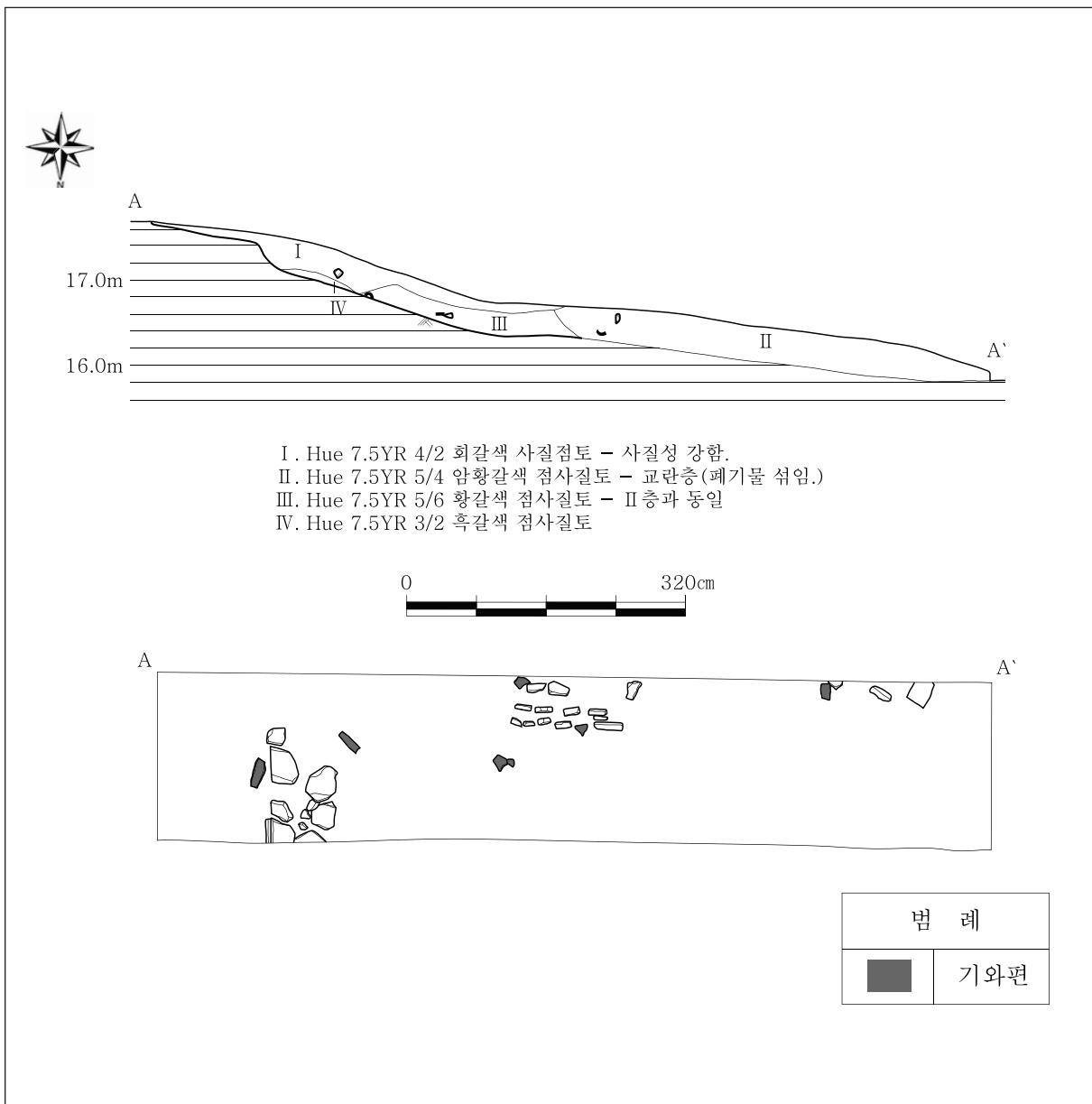


【사진 38】 7Tr. 담장석렬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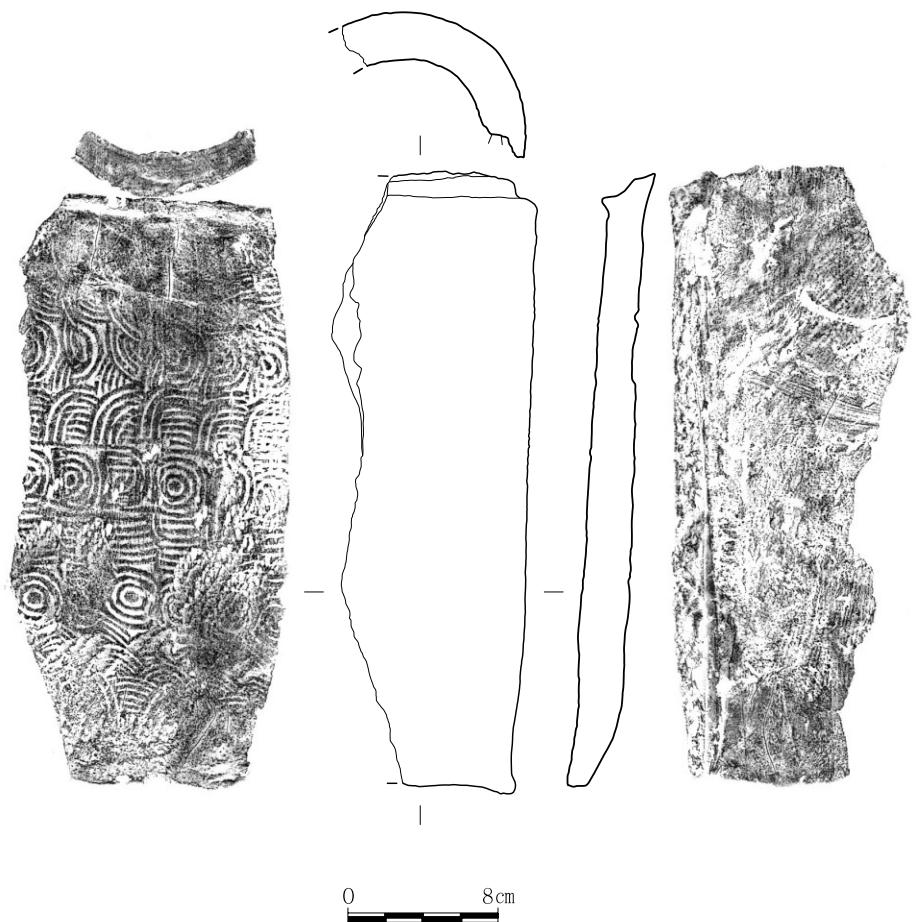
〈출토 유물〉

1)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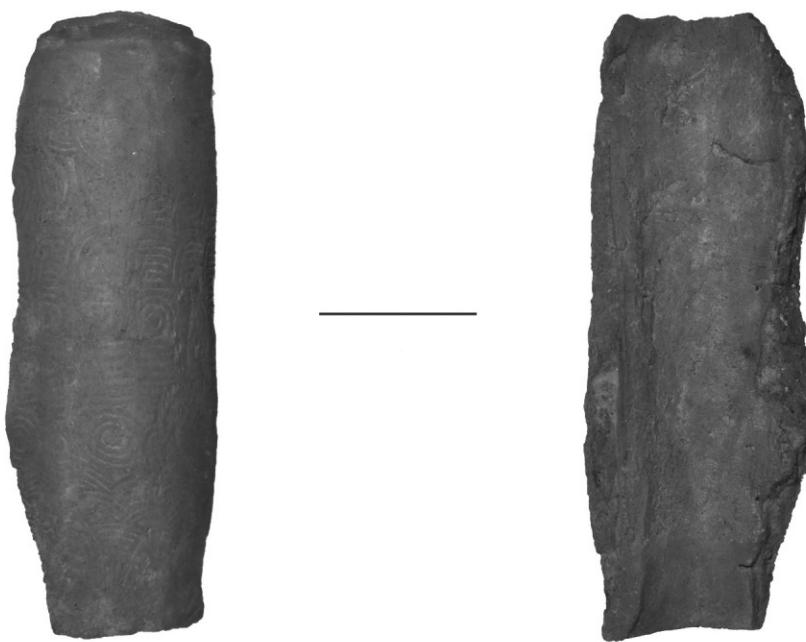
수키와로 1/3가량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미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도는 경질이다. 미구의 길이는 0.9cm이고, 언강 높이는 2.1cm이다. 외면은 호상집선문, 원문, 곡선복합문 등을 타날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빗질흔이 일부 관찰된다. 와도흔은 내측와도로 0.5cm 정도이다. 색조는 내외면이 동일한 회색(Hue 5Y 5/)이고 속심은 올리브회색(Hue 2.5GY 5/)이다. 길이 33.0cm, 너비 10.9cm, 두께 2.5cm



【도면 13】 7Tr. 평면도 및 토층도(1/80)



【도면 14】 7Tr. 수키와(1/4)



【사진 39】 7Tr. 수키와

V. 고찰

1. 배경 및 목적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총 5일의 조사기간에 걸쳐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갈현리 66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릉(長陵) 내 재실 담장터와 건물지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재실 전체를 품는 ‘匚’ 자 형태의 담장터가 확인되었고, 태선문 위주의 평기와 4점 및 도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본 조사단은 위 결과와 최근 연구 성과를 토대로 파주 장릉 재실의 담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장릉 재실의 담장

담장은 사전적 의미로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을 말하며, 우리말로 ‘담’ 혹은 ‘울타리’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장기인과 주남철은 각자의 저서에서 ‘어떤 건축물 또는 어떤 지역을 둘러막아서 보호하는 구축물’³¹⁾, ‘건물대지의 경계 또는 시설물 주위를 둘러막는 낮은 구축물’³²⁾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담장지는 재실을 ‘匚’ 자 형태로 둘러막고 있고 돌을 사용하여 쌓은 흔적이 확인되므로, 담장의 사전적 의미와 두 연구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담장석렬은 현재 재실이 있는 북쪽 언덕사면을 둘러서 재실들을 감싸안고 있는 형태로 조사되었다. 북동쪽 부분에서는 일부 ‘ㄱ’, ‘ㄴ’ 자로 연결되어 깍이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인 모양은 큰 ‘ㄴ’ 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³³⁾ 확인된 외곽담장이 폭 60cm 규모이며, 외곽담장 석렬에 덧대어 축조된 공간을 분할하는 내부담장이 폭 50cm 정도로 조사되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담장의 전체적인 규모와 크기는 1Tr.~3Tr. 까지 노출된 담장으로 추정하여 볼 때 길이가 약 46.8m, 전사청에서 북쪽 담장까지의 거리가 약 14.2m, 서쪽 담장에서 동쪽 담장까지의 최장거리가 약 56.6m 정도이다. 조사의 제한성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전체적인 원형을 다 파악할 수 없었으나, 큰 틀에서 윤곽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담장에 사용되는 석재는 대부분 20~4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현재는 1~2단 정도 잔존하고 있다. 그 중 생활도구로 사용되었던 멧돌을 재사용하여 담장을 보수한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출토된 유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선문 위주의 평기와 4점 및 도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본래 담장 기초부의 재료는 주로 돌을 사용했으나 과거 지상에 노출되었던 담장은 돌 외에도 상류주택에서 널리 사용된 기와, 사과석, 환석 등이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⁴⁾ 또한 궁궐건축이나 관아 등에 조성되었던 화초(花草)담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⁵⁾

31) 장기인, 1984, 「한국건축학사전」, 78쪽.

32) 주남철, 1995, 「한국건축미」, 104쪽.

33) 담장의 동쪽에 깍이는 지점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느티나무 고목 및 관리사무소 등의 지장물로 인해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34) 이윤정, 2005, 「한국 전통담과 그 현대적 재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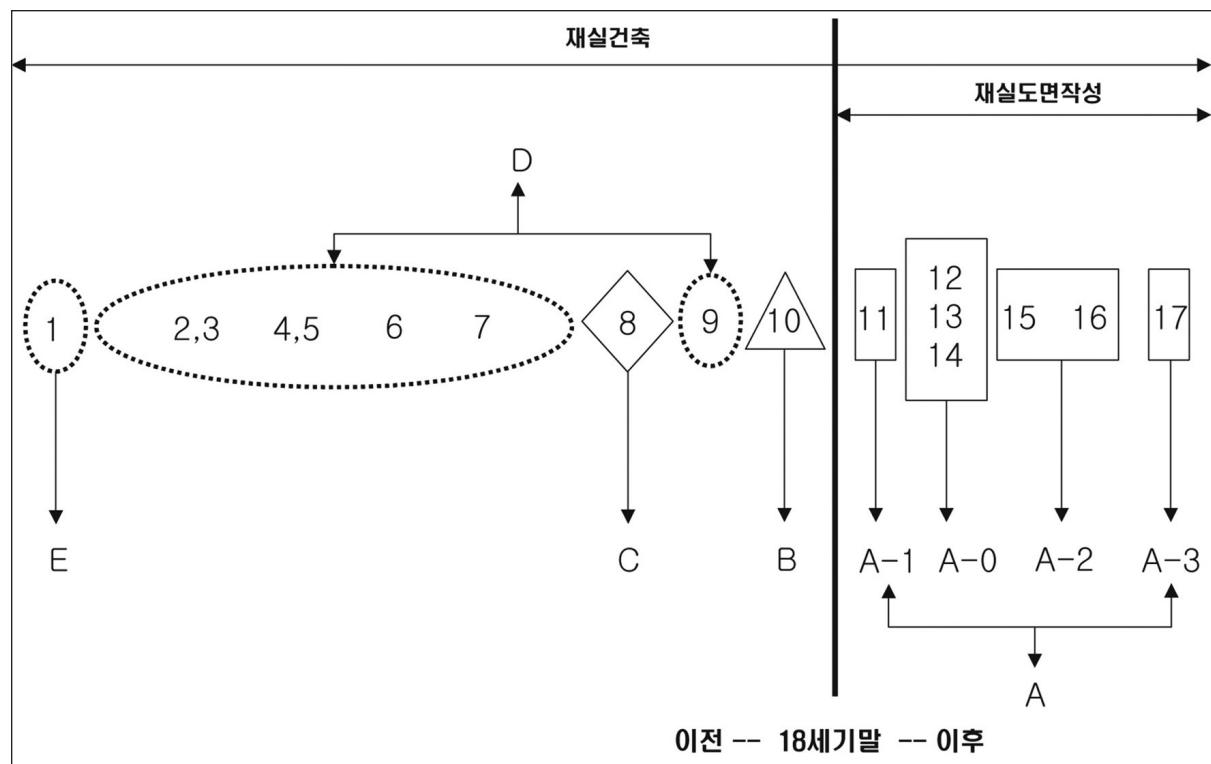
35) 임도열, 2013, 「조선후기 전통가옥 담장의 특성에 관한 고찰 -전남지방 중·상류가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쪽.

3. 담장의 조성연대

금번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 조사는 시굴조사라는 방법적·시간적 제한으로 인한 담장터의 부분적 확인으로 인해 일부분만 노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학술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에 담장의 조성시기는 재실의 재건시기와 동일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³⁶⁾

재실의 조성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료 중 염지혜³⁷⁾의 기준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연대 설정을 위한 비교자료로 현존하는 왕릉 재실 중 가장 원형에 가까운 영릉(寧陵) 재실(보물 제1532호)을 채택하였다. 염지혜는 연구논문에서 17개의 재실도면을 재실이 조성된 순서에 따라 1~17번의 번호를 부여하였고, 재실의 배치와 평면 형태에 따라 A~E까지 5그룹으로 구분하였다.³⁸⁾

【표 5】 재실 연대추정



36) 물론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재실의 보수 및 재건이 이루어진 시점과 담장의 개보수가 실시된 시기가 일치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시굴조사에서 2시간 이상의 담장터가 아닌 동일시기로 판단되는 담장터 1기가 확인되었다.

37) 염지혜, 2009, 「조선시대 왕릉 재실(齋室)의 배치 및 평면형식의 시대적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수릉과 인릉은 능이 조성된 후 천장되었다. 따라서 천장 전의 능명은 한자로 표기하고 천장 후의 능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능명	英陵	昌陵	敬陵	宣陵	靖陵	穆陵	寧陵	翼陵	明陵	弘陵	健陵	仁陵	景陵	綏陵	수릉 (천장)	인릉 (천장)	睿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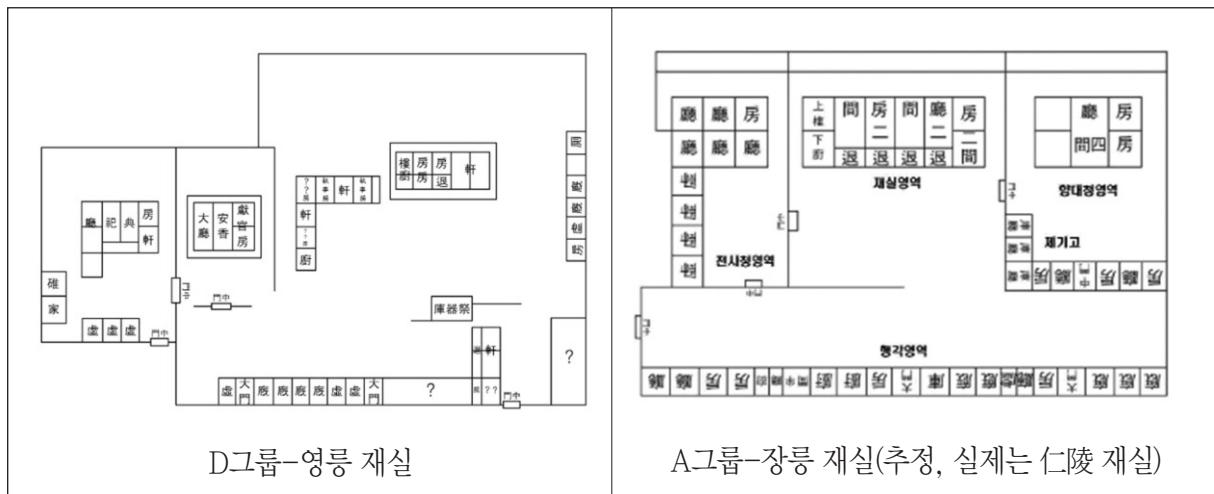
영릉의 재실(7번)은 재실영역을 우측에 두고 행랑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건물을 좌측에 배치하는 평면 형태로 D그룹에 속하였다. 반면, 장릉의 재실은 염지혜 논문의 연구대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현존하는 평면 형태는 재실을 가운데 두고 전사청과 향대청이 좌우에 있는 A그룹에 가깝다.

[표 5]에 따르면 영릉은 18세기 말 이전, 장릉은 18세기 말 이후에 조성되었는데, 이는 현종 14년(1673)에 여주에 재실이 재건되고³⁹⁾, 현종 4년(1838) 장릉 재실이 불타⁴⁰⁾ 재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재실의 담장이 2시기 이상의 담장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릉이 18세기 말 이후에 조성되고, 현종 4년(1838)에 재실이 불타 재건되었다는 기록과의 사실 판단여부가 힘들다.

그렇기 위해서는 유물과의 시기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출토된 유물은 평기와 4점과 도기 저부편 1점으로 이 소량의 유물만으로 시기를 비교한다면, 출토된 평기와는 미구가 없거나 짧고, 언강 내면이 깊고 하며, 배면의 문양이 호상집선문, 복합문 등임을 감안할 때,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기와⁴¹⁾로 판단된다. 이는 장릉의 재실이 현종 4년(1838)에 재건되어 졌다는 문헌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담장 또한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표 6】재실 평면형태 유형 비교



39) 문화재청, 2010 「여주 효종 넝릉재실 정밀실측조사보고서」, 54쪽.

40) 「承政院日記」憲宗 四年, 十二月 七日, 甲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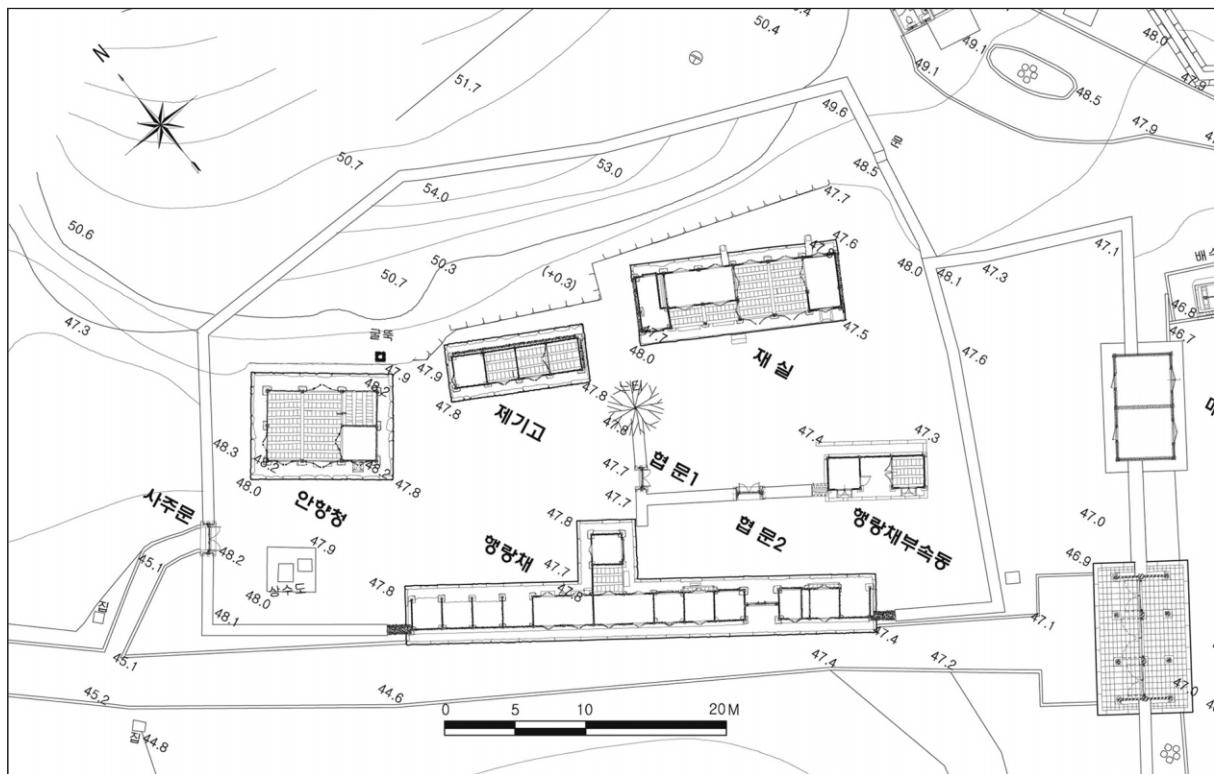
(생략) … 火從埃間燃及於大廳齋室十四間全數燒燼云矣… (생략)

41)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유적출토 기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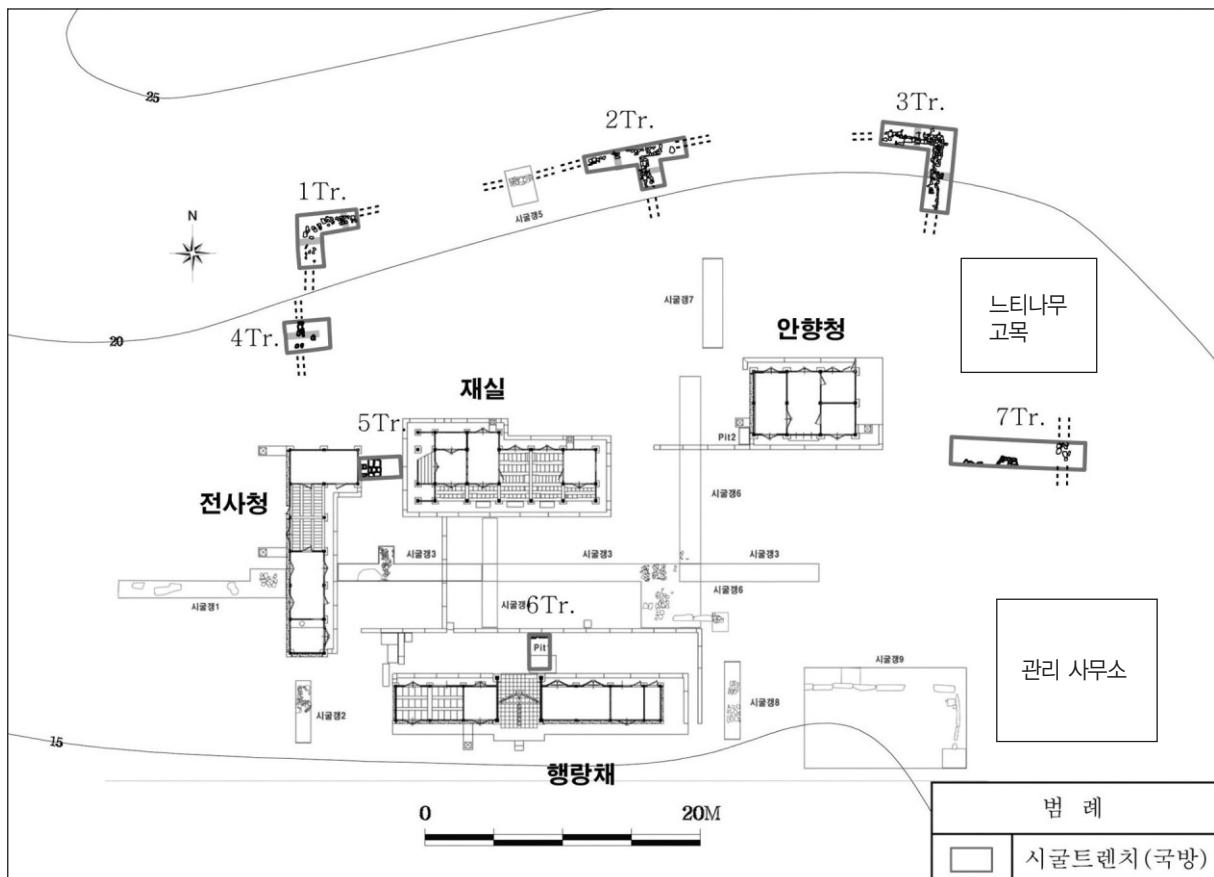
文化財廳·中央文化財研究員, 2002, 「景福宮 泰元殿園域」

國立文化財研究所·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景福宮 泰元殿址」의 보고서에 공목재의 담장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기와가 확인되는데, 이 시기 또한 19세기 이후로 판단되고 있다.

오준정, 2009, 「강원지역 조선시대 와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도 곡선계의 복합 호상집선문은 19세기 이후로 편년하고 있다.



【도면 15】영릉 재실 정밀실측도면(1/800,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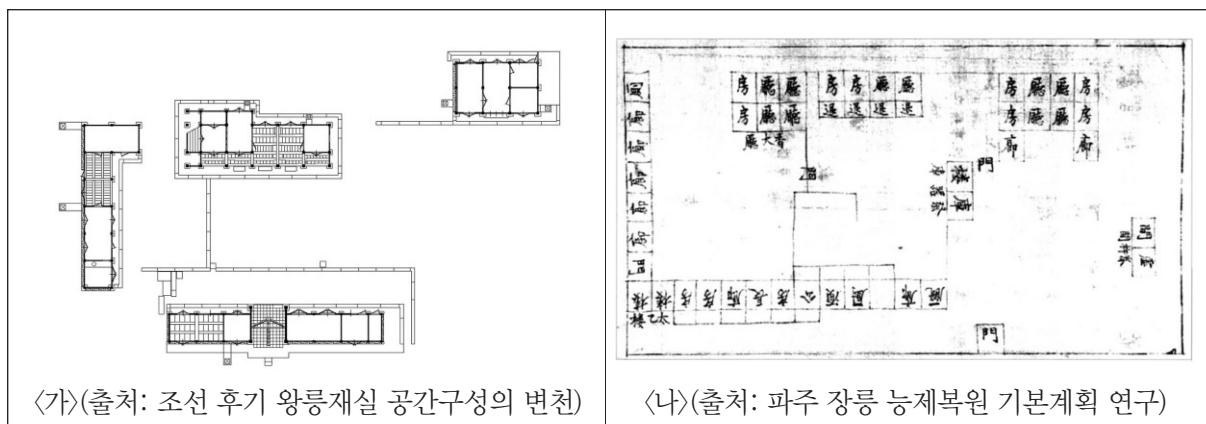


【도면 16】장릉 재실 정밀실측도면(1/800, 2014년)

4. 용어의 문제

파주 장릉 재실 영역 중 전사청으로 추정되는 곳(이하 서행각)에 대한 용어에 문제가 있어 언급해 본다.

아래 〈가〉 도면 왼쪽에 위치한 서행각은 〈나〉 도면 왼쪽 가장자리에 ‘|’ 별로 묘사된 건물(이하 서행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도면에서 묘사된 건물은 대문채인 장랑과 연접해 있는데, 이는 『장릉천릉시산릉도감의궤』에 나오는 ‘집사청은 6칸으로…(중략)…집사청에 연접하여 장랑이 12칸 있는데…’ 란 기록과 같다.



【도면 17】파주 장릉 재실 도면비교

따라서 의궤에 따르면 〈나〉 도면의 서행각이 ‘집사청’이 되고, 자연스레 〈가〉 도면의 서행각도 ‘집사청’으로 명명해야 옳다.

하지만 현재 연구자료에서 장릉 재실의 서행각을 ‘전사청’으로 부르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장릉 재실 담장터유적의 담장의 시기를 재실의 구조 및 문헌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VI. 맷음말

1. 이번 조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갈현리 664번지 일원)의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에 대한 시굴조사로, 대상지역의 사업면적은 약 2,340m²이다. 조사목적은 향후 재실 복원에 있어 원형고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의 위치 및 범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재청의 협회(제2014-0386호)를 받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2. 트렌치는 총 7개소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소는 담장석렬을 찾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2개소의 트렌치는 파주 장릉 재실유적 시굴조사(2012, 한울문화재연구원)의 보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1, 2, 3, 4, 7Tr. 에서는 담장석렬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담장석렬은 외곽 담장석렬로 20~4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폭 60cm 정도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1~2단 정도 잔존한다. 2Tr.에서 확인된 남-북 담장석렬은 외곽 담장석렬에 덧대어 조성된 담장으로 20~4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폭 50cm 정도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1~2단 정도 잔존하며, 재실과 북동쪽에 위치한 부속채 사이를 향하여 진행한다.

3.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으며, 북쪽 구릉지에서 확인된 담장석렬은 Ⅲ층(명갈색 점사질토, 구지표층)과 풍화암반을 기반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선시대 기와편과 함께 확인되었다.

조사 시 출토된 유물은 도기편 1점, 기와 4점으로 도기편은 저부만 확인되어 그 시기 및 기형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와는 호상집선문, 복합문 등이 타날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와의 특징이 확인된다.

4. 금번 조사에서 담장석렬에 대한 해답을 일부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외곽 담장석렬이 1930년대 『장릉도면』 수치지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담장의 기단과 기초잡석이 확인되었으므로 담장의 실시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쪽의 담장과 겹쳐지는 느티나무 고목은 존치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학술자문회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2014년 5월 8일 학술자문회의)

금번 조사가 시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장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굴조사의 제한성으로 인해 재실의 동쪽부 및 담장석렬이 꺾여서 확인되는 지점 등 세밀한 부분을 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시굴조사의 한계성이라고 판단된다. 추후 재실의 복원에 있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한 자료 확보 후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가나다순

〈고문헌〉

- 『承政院日記』.
- 『朝鮮王朝實錄』.
- 『春官通考』.

〈단행본〉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고양 덕이동 구석기유적 – 파주 교하–덕이동 연결도로 구간 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파주 운정(1)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 경희대부설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 國立文化財研究所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景福宮 泰元殿址』.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금파리 구석기유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V)』.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파주 당하리 유적 – 전원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경기도, 1993, 『파주 주월리 · 가월리 구석기유적』.
- 서울대박물관, 2004, 『파주 장산리 구석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 文化財廳 · 中央文化財研究員, 2002, 『景福宮 泰元殿圈域』.
- 문화재청, 2008, 『파주 장릉 능제복원 기본계획연구』.
- 문화재청, 2010, 『여주 효종 넝릉재실 정밀실측조사보고서』.
- 문화재청, 2013,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V)』.
-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유적출토 기와의 이해』.
- 장기인, 1984, 『한국건축학사전』.
- (재)국강문화재연구원, 2013, 『英陵 · 寧陵』.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가월리 유적』.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동파리 유적』.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3, 『파주 덕은리 유적』.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3, 『종묘 북단장지 유적』.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장릉 재실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탄현면 시그네틱스 증축공사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주남철, 1995, 『한국건축미』.
- 파주군 · 파주문화원, 1995, 『파주의 역사와 문화』.
- 파주시, 2009, 『파주시지』1.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4, 『파주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 및 주거지』.
-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황용복 · 신복순 · 김희찬 · 윤세영 · 이홍종 · 윤덕향,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경희고고 · 미술사연구소 총간2집 · 3집, 경희대부설 고고 · 미술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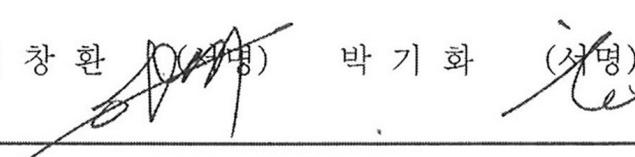
〈논문〉

- 김규상, 1998, 「파주 주월리 유적 발굴조사」, 『제22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문』.
- 염지혜, 2009, 「조선시대 왕릉 재실(齋室)의 배치 및 평면형식의 시대적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준정, 2009, 「강원지역 조선시대 와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희중, 2010, 「조선 후기 왕릉재실 공간구성의 변천 『산릉도감의궤』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윤정, 2005, 「한국 전통담과 그 현대적 재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도열, 2013, 「조선후기 전통가옥 담장의 특성에 관한 고찰 -전남지방 중 · 상류가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연, 2009,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유적명 :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시굴조사	허가번호: 제2014-0386호
자문위원 : 이 창환(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박기화(한국전통건축연구소 연구실장,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조사기간 : 2014년 04월 28일 ~ 2014년 05월 09일 (실조사일수 5일)	

자 문 의 견	1. 양강의 뒷쪽이 1930년대 "長陵園面"이라는 유사하게 우리나라 원형 양강 외각으로 사용됨,
	2. 양강의 기단과 기초부분이 높아 되도록 양강의 뒷부분에 기공한 것으로 사용됨
3. 터 양강의 양강과 함께 있는 소리나무 그늘은 설계되어 햇볕을 차는 것이 바람직함. (여기 여울 흐름 방해 재설, 양강 증가)	

자문위원 이 창환 박기화


조사기관 : 국방문화재연구원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속			
2. 옥석유리			
3. 토도	도기, 기와	5점	
4. 골각			
5. 목죽초침			
6. 기타			
계		5점	

1-2 세부목록

일련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유 물 목 록						시진 번호	비고		
			분류		크기(cm)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도기저부	1	토도	조선	.	.	.	1	1.Tr			
2	수키와	1	토도	조선	29.2	14.1	1.9	1	1.Tr			
3	수키와	1	토도	조선	27.9	12.8	2.3	1	2.Tr			
4	수키와	1	토도	조선	31.3	13.1	2.5	2	4.Tr			
5	수키와	1	토도	조선	32.7	(11)	2.0	2	7.Tr			

2. 출토유물 사진



〈사진 1〉 1·2Tr 출토유물



〈사진 2〉 4·7Tr 출토유물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 2014-0386호
유적명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시굴조사
조사기관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출토유물	수기와 등 총 5점
회의일시	2016년 2월 26일

평 가 의 견

보고서 수록대상	보고서에 수록예정인 수기와 등 5점은 보고서 작성 후 국가기속하고 것이 좋겠습니다.
학술자료 (비수록)	↗
매몰자료 (비수록)	↗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전)국립문화재 연구소장	조용진 (서명)	한밭대학교	심정보 (서명)
충북대학교	차용걸 (서명)		(서명)

發掘調査 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		發刊日	2016년 5월 4일
發刊機關	名稱	(재)국방문화재연구원		
	住所	0185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29(공릉동)		
	Tel.	02) 971-2561	Fax	02) 971-2562
執筆·編輯者	이 재, 장기경, 문현식, 최재철, 김태욱			
調査緣由	담장 복원을 위한 학술발굴			
發掘調査者	이 재, 장기경, 문현식, 안영표, 김태욱			
遺蹟所在地番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갈현리 664번지 일원)			
調査面積	시굴조사 : 2,340m ²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담장석렬	조선시대	4	기와	
		1	도기편	

(재)국방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48책

파주 장릉 재실 담장터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인 쇄 2016년 5월 4일
발 행 2016년 5월 4일
편 집 (재)국방문화재연구원
발행처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29(공릉동)
TEL. 02) 971-2561
FAX. 02) 971-2562
제 작 여명사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9-14
TEL. 042) 624-3018

(비매품)



ISBN 979-11-87143-03-1